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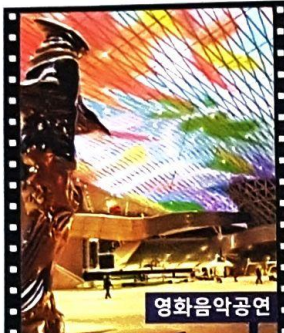


부용대에서 내려다 본 인룡 하회마을

관음송 觀音松 - 단종의 마지막 길 함께한 소나무
 청령포 수림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음송, 관음송은 단
 종 유배시의 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1998년 천연기
 념물 제349호로 지정되었다.



釜山廣域市觀光協會
 BUSAN TOURISM ASSOCIATION
<http://www.bta.or.kr>



영화음악공연



문화예술공연



씨네토크공연

공연행사 18시-22시

영화음악공연 / 18시-19시
오케스트라, 가수 등 영화관련 OST 음악 연주 및 공연
세계의 음악인들, 피아노와 바이올린, 스페어, 트럼펫, 첼로, 콘트라베이스, 기타리스트, 소프라노, 성악가, 거울디자이너, 세트디자이너, 원라이트디자이너, 애드미어, 콘지노는 양, 비, 벵

문화예술공연 / 19시-20시
현대무용, 전통무용, 비보이,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공연
신촌주 무용단, 예술극단, 여대생 밴드 프로젝트, Juddance, 무리소극단, 신촌주무용, 일본탈춤, 인도네시아 무용단, 일본탈춤, 일본탈춤, 한국탈춤 등

씨네토크 / 20시-21시 (매주 수요일 기획연 영화)
유명 영화인, 단편영화감독 영화인들 위한 1:1 토크 공연
1. 해당 단편영화 상영, 2.30분에서 30분간 단편영화 상영, 3.국악, 클래식, 현대음악 등
2. 2명씩, 최영희, 손병호, 채민호, 유영준, 김민준, 김민준, 최민준, 최민준, 최민준

3D 미디어아트쇼 / 21시-22시
3D 미디어아트쇼, 영화OST 편성, 개별영화 티저영상 상영
3D 미디어아트쇼: 신들의 왕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 영상상영

2015 BCMF
Busan Cinema Center Movie Music Festival

부산영화 관광축제

2015. 7. 19(일) ~ 8. 30(일)

매일 오후 1시 ~ 10시 체험&공연 행사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협력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협력 |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영화의전당,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3D미디어파사드



오드리헵번전시회



피규어&영화소품체험전

전시행사 10시-20시

피규어 & 영화소품 체험전
사실처럼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는 피규어
전시기간 2015년 7월 24(일) - 8월 30(일)
전시장소 부산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400명 야외동
관람시간 10시 - 20시 (관람 종료 / 시간 제한 구역 및 입장 종료)
유치사항 사전 및비오 촬영 가능 / 음식물 반입 불가 / 24개 미만 어린이는 개인간격 등반에 한해 무료 / 중학생 이상 불가
티켓가격 정산 12,000원 - 성인가 9,000원

오드리헵번 전시회
전시기간 2015년 5월 9(일) - 9월 6(일)
전시장소 부산영화의전당 비프홀 1층 북극마을
관람시간 화요일 - 일요일 11시-19시 (매주 월요일 휴무)
관람료 무료 (사전 신청 가능) / 입장료 별도
주 최 다경 소극장(영화의전당 2시간 무료)
유치사항 사전 및비오 촬영 불가 / 전시장내 음식물 반입 불가 / 최후 2시간 입장 불가
티켓가격 정산 12,000원 - 성인가 9,000원

부산이 드리는 특별한 선물!

Busan Grand Sale 2015

9. 11. - 10. 10.



부산관광카드
부산관광을 마음껏 즐기는 방법은?
부산관광카드 한장이면 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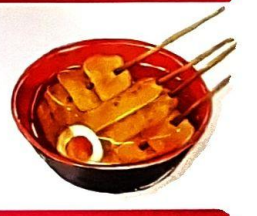
나만의 부산여행
나 스스로 부산 관광코스를 만들어 보아요
<http://tour.busan.go.kr/index.busan>
<http://bto.or.kr>

Amazing Food 입이 즐거워지는 대표 먹거리

시앗호떡
남포동 거리에서부터 유명해진 시앗호떡은 흠뻑탕과 함께 호박씨, 해바라기씨앗, 땅콩, 아몬드 등과 잘 어울려진 한국인의 대표 간식거리 중 하나이다.



부산어묵
생선살을 다져 다양한 야채와 밀가루로 만든 부산어묵! 부산이 자랑하는 국민 대표 먹거리이며, 최근 들어 다양한 모양과 맛으로 세간의 입맛까지 사로잡는 그야말로 한류음식의 일등 공신이다.



돼지국밥
돼지뼈를 진하게 우려낸 육수에 수육을 넣고 밥을 많이 먹는 국밥으로 부산을 비롯한 경남 지역의 대표적 향토음식이다. 여기에 고춧가루로 다진 양념, 새우젓을 넣고 부추김치와 함께 깎두기를 얹어 먹으면 한끼 식사로 딱 인성맞춤이다.



부산밀면
40년을 이어온 부산의 대표음식이다. 밀로 만들어 방면과 국수의 정점을 다가지고 있는 밀면은 냉면처럼 시원하고 쫄깃쫄깃 국수처럼 면에 간이 배어져 있어 그 감칠맛이 일품이다.



발행·편집인 이태섭

편집위원 손해식, 이평규, 김중규, 이해원, 김봉오

편집국장 박성하

취재기자 이효영 (김대현, 김무웅 기자)

발행일 2015년 7월 25일

등록일 2010년 9월 27일

등록번호 부산동라 00009

발행처 부산광역시 관광협회 _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243번길 38

TEL. (051)463-3111, 463-3080 FAX. (051)463-0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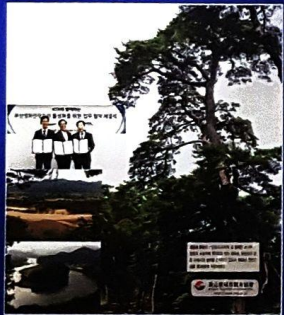
편집실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길10 석천빌딩 2층

TEL. (051)469-3563 FAX. (051)466-8062

E-mail. bjlbusan@hanmail.net

편집·디자인 보문디자인 TEL. (051)469-3563

http://www.bomoon.kr



표지 _ 관음송

- 05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 06 관광업계 3분기에도 메르스 여파 못 벗어날 듯
- 07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위치 위해 한국관광홍보 '100일 작전'
- 08 지역 국회의원, 각계인사 서울 등지에서 관광홍보 펼쳐
- 09 유네스코 지정 '영화 창의도시' 선정 제1회 부산영화관광축제
- 10 부산시 '도시브랜드 10대사업' 선정
- 11 부산 바닷길 새관문 국제여객터미널 8월 개장
- 12 한국전쟁 피란수도 흔적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 13 부산역사문화 백과사전, 5년만에 결실
- 14 산복도로, 역사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부활
- 15 동구,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 산복도로 만디버스 8월 운영
- 16 20회 맞는 부산국제영화제 올해 70개국, 300여편 초청
- 17 해운대 아름다운 야경 7선에 포토존 설치
- 18 한국, 외국 관광객 유치 7년만에 일본에 밀려
- 19 중국 관광객 한국행 감소, 8월까지 이어질듯
- 20 부산시 세계속 빛도시 목표위해 본격 사업추진
- 21 부산시 관광협회 국내여행분과위원회 워크샵 - 경북, 충북, 강원 자연기행
- 27 43회째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의 '강진정자축제' 개최
- 28 아름다운 철길 '동해남부선 이곳은 당신들의 구간'
- 29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 30 한국인이 찾는 여행지 일본, 중국, 홍콩, 태국, 필리핀 순...
- 31 부산~광주 국제노선 에어부산 신규취항
- 32 부산시티투어버스 3개소 신규코스 추가 운영 확대
- 33 부산시, 의료관광 유치위해 맞춤형 10대 특화경진상품개발
- 34 호텔가소식
- 36 2015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
- 38 문화칼럼 - 노년단상
- 39 해양칼럼 - 동방의 등불이 될 북항 마스터 플랜
- 40 제7회 부산관광 VOC 전국공모전
- 41 제18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부산관광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찬 관광도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우리 후대에 전해 줄 확고한 신념으로 부산관광회관 건립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부산관광회관 건립 기금을 출연하여 주신 분들

총 기금 적립액 (2015년 7월말 기준) ₩217,510,626

2013년도 기금 적립내역			2014년도 기금 적립내역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1억원	회장	이태섭(게스후? 대표)	500만원
부회장	신도역(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부회장	신도역(씨클라우드호텔 대표)	5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500만원	부회장	강석환(두모씨앤씨 대표)	200만원
이사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200만원	부회장	김해룡(부산해상관광 대표)	200만원
회원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200만원	부회장	강준구(진성관광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200만원	부회장	장승복(대륙항공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수태(앤쇼핑 대표)	200만원	부회장	서학영(동방여행사 대표)	100만원
회원	이기형(티플러스 대표)	100만원	이사	김성현(부산롯데호텔 총지배인)	200만원
2015년도 기금 적립내역			이사	조용황(한국명품민예사 대표)	100만원
사무국 직원 일동		100만원	회원	성호영(한국민속식품 대표)	100만원
회원	정진수(팬더투어 대표)	10만원	회원	박동준(매일쇼핑 대표)	100만원
이사	이봉순(리컨벤션 대표)	100만원	회원	이수태·이광신(앤쇼핑 대표)	100만원
회원	장일종(아크투어 대표)	300만원	협회 사업수입 기금(이자포함)		₩69,610,626
회원	김정연(관광호텔 42번가 대표)	30만원			
이사	문영훈(미동양소정 대표)	50만원			

부산관광을 선도하는 강한 협회를 만드는데 모든 회원들이 심심일만 동참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 협회 발행 각종 간행물과 회관 건립 초석에 담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회관건립기금 조성 계좌-
부산은행 101-2024-4232-05 **예금주: 부산관광협회**
 (입금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손비처리용 영수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관광업계 3분기에도 메르스 여파 못 벗어날 듯

부가가치세 비וט, 세금 납부유예 등 정부차원 대책 마련 요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올해 2분기 국내 관광 업황이 사상 최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 149곳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분기 업황지수는 14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던 작년동기의 53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1분기(50)를 무려 36포인트나 밀도는 것일 뿐 아니라 첫 조사가 시작된 2007년 2분기이후 최저치다. 100이 넘으면 업황 경기가 좋았다는 응답이 많다는 것이고, 100 미만이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 우세한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을 국내에서 관광시키는 국내 여행업의 현황지수는 0이었다. 경기가 좋았다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가 선호하는 1~3급 호텔은 5로 그 뒤를 따르며 예외없이 직격탄을 맞았다. 특급호텔(11)과 대형놀이시설 등 유원시설업(13) 등도 평균치를 하회했다.

유커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국내에 유치, 관광시키는 일반여행업도 16으로 저조한 편이었다.

다만 국내 관광객을 외국에 보내는 국외여행업은 29로 관광

업계 가운데 최고치를 나타냈다.

2분기 매출뿐만 수익성, 자금 사정까지 모든 경영실적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나빴던 것으로 조사됐다. 매출 현황지수(15)와 수익성 현황지수(15), 자금사정 현황지수(17)도 모두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분기 최악의 시련을 겪은 관광업계는 3분기에도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3분기 관광산업 업황 전망지수는 21로 작년동기의 73에 비해 무려 52포인트 하락했다. 이 역시 역대 최저치다.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 관광을 전담하는 일반여행업은 16으로 가장 낮았고 1~3급 호텔(17)과 국내여행업(20)도 평균치를 하회하며 업황전망이 매우 불투명했다.

매출 전망지수도 작년 같은 기간의 72보다 51포인트 떨어진 21을 나타냈고 수익성 전망지수도 78에서 25로 53포인트, 자금사정 전망지수도 74에서 25로 49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3분기에도 호텔업과 여행업종을 중심으로 관광업계는 메르스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관광업계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유예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bjbusan@hanmail.net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위해 한국관광홍보 '100일 작전'

중국,일본,동남아 지역 언론인 초청 해외서 이벤트도 개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급감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다시 불러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오는 10월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일본의 오봉절(8월)과 실버위크(9월), 중국의 국경절(10월)을 지렛대 삼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수준을 메르스 사태 이전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100일 작전의 목표다.

관광공사는 해외에서의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중국, 일본, 동남아 지역의 언론인들을 대거 초청한다. 오는 8월까지 중국에서 100명 규모의 언론인을 초청하고, 일본에서도 100여 명의 여성기자단을 초청해 방한 취재를 지원한다. 동남아 지역에서도 9개국 50명의 언론인을 불러온다. 이와 함께 8월부터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에서 관련 관광 상품 로드쇼를 진행한다. 런던,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도쿄(東京), 자카르타 등에서는 공연관광 로드쇼가 계획되었다.

해외 소비자 대상의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8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한류스타를 총동원해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한국 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하고, 9월에는 미국 뉴욕과 중국 광저우(廣州), 10월에는 태국 방콕과 일본 도쿄에서도 같은 행사를 진행한다.

관광공사는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항공사와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 베트남항공 등 아시아지역 10여 개 항공사와 공동관광마케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무료 항공권 증정, 무료 수하물 제공, 단체객 특별할인 등을 제공해 방한 수요를 늘려나가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도 추진된다. 이달 중 주한 외국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병원 방문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8월엔 전국 1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의료관광 대전을 개최한다. 또 의료관광 수요가 많은 러시아에서는 한국 의료관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제작된다.

방한회복100일 작전, 내달 일본관광객 1000명 유치

특별기획한 모니터투어단으로 한국관광부활의 청신호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로 침체한 한국 관광시장 극복을 위한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의 하나로, 대한항공과 공동으로 메르스 종식선언이 예상되는 8월 첫째 주 일본인 관광객 단체 1000명을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규모 일본인 단체는 100일 작전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사 도쿄지사에서 특별기획한 모니터투어단으로, 모객광고를 게재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마감 숫자에 육박하는 인기몰이를 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와 메르스로 얼어붙은 일본관광시장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투어는 총 2개 코스로, 전통문화 선호층을 위한 '백제 유적지 탐방코스'와 한류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 '떠오르는 한류 명소코스'로 일정이 구성되어 있다.

공사에서는 이들의 방한기간 동안 설문조사 등을 통해

향후 일본시장 회복을 위한 핵심 '키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7월 13일부터 4일간 일본 동북지역을 대표하는 3개 도시에서 현지인 약 4,000명을 초청하여 난타 등 한국의 대표적인 논버벌 공연을 펼친 한국관광 교류의 밤, '한국 요리교실' 등을 통해 대대적인 한국관광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대규모 모니터 투어단의 한국 방문이 메르스로 위축된 방한 관광시장을 회복하는 신호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방한시장 회복 100일 작전' 일본시장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 달 25일 한일우정의 주간 2015 JYJ 멤버십유니크, 8월 말 일본 주요여행사 부장단 초청 팬투어, 9월 초 한일우호교류사절단 파견 등 집중 마케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 여름엔 부산가자! 부산관광 로드쇼 서병수 부산시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태섭 부산시관광협회장 등 지역 국회의원, 각계인사 서울 등지에서 관광홍보 펼쳐



부산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돕기 위해 전국에서 대규모 관광 로드쇼를 개최했다.

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등은 이달초 '올여름엔 부

산 가자'를 주제로 대규모 '부산관광 로드쇼'를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태섭 부산시 관광협회장, 지역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산관광 홍보단은 서울역과 명동 일대에서 부산관광 홍보 물과 할인 쿠폰북 등을 나눠주며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또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과 대구백화점 앞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관광업체들도 동참해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시는 부산 시티투어버스를 5천 원에 탑승할 수 있는 이용권을 비롯해 부산어묵과 유람선, 요트, 숙박에 적용되는 할인권을 한데 묶은 할인 쿠폰북을 제공했으며, 부산지역의 관광명소와 여름 축제 등에 관한 정보 제공했다.

국내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9월까지 면제

법무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으로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 위축을 막고자 비자 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인 등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는 9월30일까지 면제된다.

통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으려 한 사람에 15달러(약 1만7천원)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

중국 외에 단체비자가 발급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단체 비자 수수료가 면제된다.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

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일본을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우리나라에 체류(최대 15일)하면서 관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법체류자 발생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CNBC는 HSBC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8월까지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20%정도 더 감소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관광·여행업계에서는 매년 한국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들 중 6월부터 8월 사이를 택하는 사람을 약 35%로 추산하고 있다.

유네스코 지정 '영화 창의도시' 선정 제1회 부산영화관광축제

영화의 전당 야외 광장에서 8월 30일까지 기념행사 열려



제1회 부산영화관광축제가 오는 8월30일까지 영화의전당 두레마을 야외광장에서 열린다. 축제는 지난해 12월 아시아 최초로 부산이 유네스코 지정 '영화 창의도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열리는 행사다.

부산영화관광축제는 코레일 등과 연계해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여행자를 부산으로 발길을 옮기게 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부산에 '영화도시' 즐기기가 더해진 축제다.

또한 축제 기간 벌어질 다양한 공연은 부산 문화 예술인 및 영화인에게 활동무대가 주어지는 기회의 장이기도 하다. 부산영화관광축제는 크게 공연, 체험, 전시 행사로 구성돼 있다. 축제는 매일 13시~18시 체험행사, 18시~22시 공연 행사가 열리며 무료다.

매일밤 펼쳐지는 영상축제는 축제 기간동안 잊지 못할 감동을 줄 예정이다. 상영시네마 영상과 3D 미디어 파사드, 영화 OST 편집, 개봉영화 티저영상 등을 상영한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가족 및 관광객 중심의 체험 및 이벤트 행사로 꾸며졌다. 야외광장에는 스케이트보드 데모쇼와

스케이트보드 체험 코너가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을 재현한 코스프레 퍼레이드는 축제의 즐거움을 더한다.

피규어&영화소품 체험전은 영화관광축제의 신나는 볼거리다. 대형 4m 규모의 할크 피규어를 비롯해 영화 제작에 사용된 차량, 건물, 소품 등이 준비하다.

영화의전당 비프힐 1층 특별전시실에는 '오드리 헵번, 뷰티 비อนด์ 뷰티'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피규어와 오드리 헵번 전시는 별도의 관람료가 있다.

한편, 야외광장에는 500개 테이블이 설치된 국내 최대 노천카페가 열린다.

이외에도 영화의 전당 주차장 3시간 무료 주차 서비스도 제공한다. 무료 주차는 기존 영화의 전당에서 영화나 공연 관람 후 2시간 무료 주차 혜택에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영화관광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전화 (051-747-8664)로 하면 된다.

이효영 기자

부산시, '도시브랜드 10대사업' 선정

부산국제영화제, 원도심 골목투어, 영화의전당 관광상품화 등



부산시는 2012년 제1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브랜드사업 23개 사업에 대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단계별 평가를 실시하여 '도시브랜드 10대 우수사업'을 선정 최근 발표했다.

평가는 기본계획에 의해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으며, 올해는 제1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1차 추진부서 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로 단계별 실시했다.

1차 평가는 도시브랜드 추진 프로세스에 대한 자체진단이며, 2차 평가단 평가는 도시브랜드적 관점에서 5대 가치영역별 ▲도시정체성 확보 ▲경제활성화 기여 ▲문화수혜층 확대 ▲시민의식 고취 ▲국제적 인지도 향상 등의 5대 지표 달성도를 점수화했다.

도시브랜드 10대 우수사업은 먼저 부산만의 특화로 아시아 대표 브랜드로 정착 성공한 사업 ①부산국제영화-세계3대 영화제로 도약 ②영화의 전당 관광 상품화 추진 등이 선정됐다.

또 지역정체성과 부합 지역브랜드 향상에 긍정적 기여한 사업 ③Bridge of Busan 세계 명품화 추진 ④부산시민공원 세계적 명품 숲 조성 ⑤산복도로 르네상스 추진 등이 뽑혔다.

아울러 SNS 활용, 젊은층 대상, 무형의 자산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지향한 사업 ⑥유튜브 해외마케팅 ⑦부산사랑 전국파워 블로거와의 만남 등과 소통 공간과 운영 프로그램 우수 사업 ⑧부산불꽃축제 확대 ⑨갈맷길 브랜드화 추진 ⑩로컬 푸드명품화(향토음식 홍보)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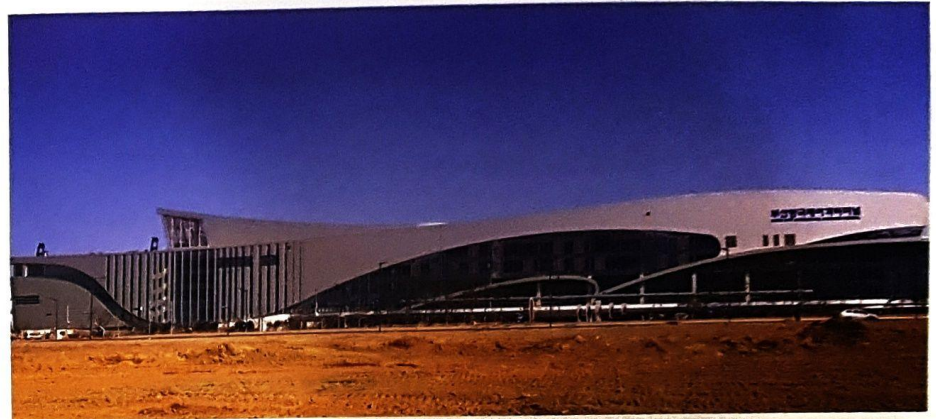
이번 평가에서는 시설 규모보다 시민참여, 소통·공감 등 소프트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공동체 회복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 소프트웨어를 발굴 운영하는 등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브랜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2차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에서는 경제, 문화, 환경, 시민, 인프라,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무형자산을 브랜드화해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사람중심인 행복한 시민과 건강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시행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로 시민공감대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 활력에 주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3년 연속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아시아의 대표 '부산국제영화제-제3대 영화제로 도약' 과 갈수록 젊어지는 '갈맷길 브랜드화 추진' 사업은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우뚝 자리매김 했다.

김효영 기자

부산 바닷길 새관문 국제여객터미널 8월 개장 관광객들이 다양한 체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할 방침



크루즈선을 타고 부산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 2003년 6천396명을 기록한 이후 2011년 7만6천여명, 2012년 16만여명, 2013년 28만9천여명, 지난해에는 34만 8천여명으로 매년 급속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4만2천여명(12%) 늘어난 39만여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을 찾을 전망이다.

올해 크루즈선 130여회 입항 예정

지난해 부산항에는 크루즈선이 110회 입항했고, 부산은 1천500여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여회가량 늘어난 130여회 입항 예정으로 관광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크루즈선 입항이 늘어남에 따라 크루즈 접안시설 확충과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하기 쉽고 편하도록 영도구 동삼동 국제크루즈터미널 부두를 8만 규모에서 22만 규모로 늘린다. 440억원을 들여 360m인 부두 길이를 40m 연장하고, 수심도 깊게 하는 공사를 201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남구 용호부두와 관광유람선부두에도 257억원을 투입해 200m 길이의 방파제를 설치,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달에는 부산항 새 국제여객터미널을 개장한다. 부산

바닷길의 새 관문이자 해양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부산항 새 국제여객터미널은 2012년 7월 착공 이후 2년 6개월 만인 올 2월 준공했다. 새 국제여객터미널은 2천300여억원을 들여 부산항 북항 기종 3, 4부두 일원에 들어섰다. 전체 건축 면적은 9만3천㎡, 국제여객터미널등(7만8천802㎡), 게이트·경비초소(815㎡), 강웨이(8천669㎡), 보세화물창고(3천45㎡), 비가림시설, 근로자휴게소, 면세품 인드장(2천600㎡) 등을 갖췄다.

부두시설은 국제여객선 2만급 5개 선석, 500급 8개 선석과 10만급 크루즈선박이 딸 수 있는 1개 선석 규모다. 터미널은 2020년 기준 연간 278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외형은 고래의 활찬 유영과 파도의 역동성을 형상화해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를 잘 표현했다. 뛰어난 건물 외관은 빌딩스마트협회로부터 2012년 'BIM Award Design 부문 우수상'과 'BIM Award Vision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터미널 개장을 계기로 쇼핑과공연스там방 등 단순한 기항지 관광프로그램에서 벗어나, 템플스테이나 다도 등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면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할 방침이다.

김우용 기자

한국전쟁 피란수도 흔적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근,현대 역사문화관광 벨트 조성사업도 추가해 추진



임시수도기관관

40계단

유연모지

보수동 책방거리

부산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한 피란수도 건축·문화자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시 문화관광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최근 밝혔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 사업' (대청로 임시수도 상징거리 조성사업)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를 추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한국전쟁 65주년을 맞아 임시수도 부산의 역할과 역사적 기능을 재평가하고, 문화영토 확장 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 전쟁 시기 형성된 새로운 국가수도로서의 유일성 ▲ 피란수도의 다양한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독특성 ▲ 1천23일간의 장기간 국가수도 기능을 한 장기성 ▲ 동·서양 근대건축 자산의 융합성 ▲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피란민을 수용한 포용성 등 측면에서 피란수도 흔적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등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까지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국제적 네트워크와 전 시민적 참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최종 등재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DB)화와 보존체계 구축, 복

원사업,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등 자문기구의 가치 평가를 위한 자문과 현지실사 등 최종 등재까지 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등재 대상은 한국전쟁과 관련된 건축·문화자산 66곳이다.

이중 피란수도 시절 정부청사(현 동아대박물관)를 비롯해 미국 영사관, 대통령 관저(현 임시수도기관관), 유연모지, 피란민 애환이 서린 40계단과 보수동 책방거리 등 7곳이 원형 그대로 남아있다.

또 상공부(현 한국전력), 전시연합대학교양학부 건물(현 부민관), 미군장교클럽(현 용두산공원) 등 11곳은 일부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나머지 국회의사당(옛 부산극장과 문화극장) 등 48곳은 건물형태가 완전히 변형됐다.

시는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례를 보면 고대와 중세 중심에서 근대 유산도 목록에 올리는 추세이며 불가피하게 변형된 상태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부 변형됐거나 완전 변형된 부산의 피란수도 흔적도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네스코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은 해인사 장경판전과 석굴암, 불국사 등 11건이다.

또 부산시와 일본 나가사키·시모노세키시 등이 공동으로 조선통신사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김무웅 기자

부산역사문화 백과사전, 5년만에 결실

교육연구, 문화관광 활성화, 부산가치 재발견 등 비전 제시

부산 지역 역사문화 정보를 총망라한 전자 백과사전이 5년 간 진행된 대역사의 결실을 보게 됐다.

부산시는 1일부터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釜山歷史文化大典)'을 인터넷(busan.grandculture.net·사진)과 모바일(m.grandculture.net)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네이버(N.AVER), 구글(Google), 다음(Daum),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등에서 '부산디지털역사문화대전'으로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연구편찬은 부산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함께 진행한 협력사업으로 이는 16개 구·군을 포함한 부산의 역사와 문화예술, 종교·민속,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자 백과사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삶의 터전과 차취, 삶의 주체, 삶의 틀·내용과 방식, 삶의 이야기, 부산 사람들의 삶 등 총 10개 분야 1만 5000항목의 콘텐츠를 담았고, 멀티미디어 자료(2만3000여

건), 생활사 동영상(21건), 전자지도(1만 건), 전자연표(1만 건) 등도 구축했다. 편찬사업은 지난해 12월 마쳤으며, 그동안 시스템 시험운영 점검과 보안 작업을 진행했다.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 편찬사업에는 부산 지역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지식 정보 역량을 총집결했다. 부산의 자연지리, 역사와 문화, 생활과 민속 등 다양한 정보를 동영상, 사진, 도면 등 시청각 자료와 가상현실 공간을 통해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생생한 삶의 현장 이야기도 생동감 있게 수록했다. 이용자 등록과 로그인을 통해 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용자 편찬 기사는 인증을 거친 뒤 콘텐츠로 서비스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부산역사문화대전이 부산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연구와 문화·관광 활성화는 물론 부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무웅 기자

올해 성수기 김해·대구 항공수요 신장세 전망돼

김해·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항공수요가 메르스영향을 받지 않은채 김포·인천을 앞지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연구 결과 김해공항은 2015~2030년 항공수요가 연평균 4.7% 증가해 2030년에는 지금보다 2배 가량인 216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잠재 수요가 풍부하다는 것이다. 영남권 해외여행객은 일본, 중화권, 동남아권까지 고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영남권 공항과 거리상 매우 가깝고, 최근 엔저까지 지속되면서 방문객이 지난해대비 30% 정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마도 방문 비율이 높았으나, 지난 3월 이후 LCC들의 저가할인 프로모션과 항공편이 증대되면서, 오사카, 후쿠오카 지역 개별 여행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중화권은 단연 대만 방문이 인기가 많은데, 지난 4월 제주항공이 부산~대만 신규노선에 취항하면서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태국 휴양지와 방콕이 가장 선호 지역이고 3월 이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 메르스 영향으로 소폭

주춤하는 상황이다.

메르스로 시작된 여행업황 불만이 지속되고 있지만 영남권 상황은 수도권 수준의 충격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인바운드 수요가 크지 않고, 메르스 전염이 거의 없어 아웃바운드에 전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예약률도 전년대비 20~30% 신장된 상황으로 취소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영남권 성수기 해외여행시장은 일본과 동남아 휴양지가 독점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기가 꾸준했던 중국의 경우 전세 편수와 인바운드용 정무원이 소폭 줄어들며 인기가 주춤한 상태다. 대신 일본의 경우 근거리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거 중복 취항해 있어 좌석 잡기가 용이하고, 여행 목적이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다. 동남아의 경우 만년 인기 지역인 홍콩, 마카오는 물론 세부, 파타야 지역도 올해 큰 붐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 사이판 노선은 인기가 점점 증해 성수기 최대 큰폭의 신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웅 기자

산복도로, 역사 숨쉬는 문화공간으로 부활

한국전쟁 아픔 간직한 마을전체가 근대 문화유산
6.25 피난민, 태극도 신도들이 모여 살아온 감천문화마을 등

산복도로가 부활하고 있다. 산복도로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부산 산복도로 일대는 일본인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미군에서 흘러나온 현책을 팔며 타향살이를 이어가고, 좁은 산기슭에 수천 명이 다닥다닥 모여 살았던 한국 전쟁의 피란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다. 부산의 근대를 형성했던 부산의 역사가 오롯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부산의 산토리니라 불리며 부산의 대표 산복도로 마을로 부상한 감천 문화마을의 역사는 산복도로의 형성 역사를 그대로 말해준다. 원래 이곳은 주민 50~60명이 모여 살던 곳. 6·25전쟁이 터지면서 피란민들이 들이닥치며 좁은 골목을 따라 고산죽(?) 마을이 생겼다.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좁은 골목, 피란민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식수를 받던 동네우물터, 태극도 신을 모신 산제당 등 동네 곳곳에 당시 생활상이 그대로 남아있다.

'산복도로 다시 보기' 열풍에 힘입어 감천동 문화마을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씩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산복도로를 부산을 대표하는 브랜드 파워로 키우기 위한 민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까지 마을 종합재생 프로젝트

부산시가 본격 시작한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8·15해방과 한국전쟁 등 역사적 산물인 원도심 산복도로를 주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마을을 탈바꿈시킨다는 '마을 종합재생 프로젝트'다. 오는 2020년까지 10년 동안 1천500억원을 들

여 ▷공간재생 ▷문화재생 ▷생활재생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개선하고, 산복도로가 간직한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영주·초량, 좌천·수정, 보수구역을 아우르는 구룡산 권역 ▷아미·감천·충무, 대신구역을 포함한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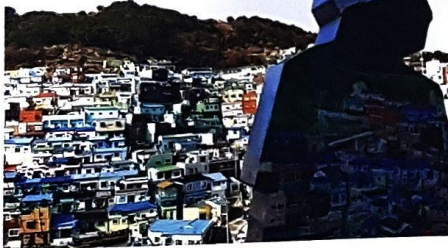
천마산 권역 ▷범천·범일, 가야, 주례·개금 구역을 아우르는 엄광산 권역 등 3개 권역 9개 사업을 포함하는 방대한 규모다. 부산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공공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

산복도로 일원 마을이 유지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도 진행한다. 모든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이면서 산복도로가 지닌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오는 202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부산의 새로운 매력이 넘치는 산복도로는 살기는 좋아지고 근대유산으로서의 가치는 오롯하게 보존될 것이다.

잘 정돈된 산동네 마을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부산의 산토리니'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동구·중구·서구·사하구·영도구 산복도로 만디버스 8월 운행 시민, 관광객 편리하게 산복도로 투어 즐길 수 있게 돼

동, 중, 서, 사하, 영도구 산복도로로 운행 할 산복도로 순환 투어버스인 '가칭만디버스'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또 만디버스를 타고 산복도로를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된다.

부산시는 만디버스 시범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우선 1억 원의 예산을 투입, 25인승 버스 3대를 임차해 다음 달 초부터 동구에서 중구, 서구, 사하구, 영도구를 잇는 산복도로를 순환 운행하기로 했다.

시범 운행은 평일을 포함한 주 4일(목·일) 이뤄지며, 하루 11차례 4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첫 버스는 부산역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하고, 마지막 버스는 부산역에서 오후 8시 출발해 야경을 볼 수 있다. 주요 경유지는 안창마을과 까꼬막, 유치환 우체통, 이바구공작소, 디오라마전망대, 금수현의 음악살롱, 비석마을, 감천문화마을, 한마음행복센터, 남항대교, 현어몰마을, 영도대교 등이다.

탑승은 무료로 이뤄지지만 순환코스 중 2곳에서 체험활동을 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체험비용이 1인당 1만 원 들게 된다. 순환버스와는 별도로 테마형 버스도 하루 두 차례(오전·오후) 운행될 예정이다. 운영은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맡기로 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산복도로 순환 투어버스가 도입됨에 따라 시민과 관광객은 편리하게 산복도로 투어를 즐길 수 있게 됐으며, 주변 도시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부터 만디버스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만디버스 운영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조만간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11월까지 예산 1억 원이 투입된 산복도로에서 ▲만디예술(가이드북 제작·콘서트) ▲만디그라피(촬영·전시회) ▲공공예술 만디(아트마켓·디지털정보 구축) 등 다양한 공공예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초량 산복도로 일대 도시민박촌 운영키로

부산 동구청은 내년 1월부터 도시민박촌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시민박촌이 들어설 곳은 동구 초량 6동 유봉정 일대로, 25억 원을 투입해 인근 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유봉정은 음식점으로 12월 시범 운영된다.

도시민박촌은 유봉정(158㎡), 체코인센터(59㎡), 아트팩토리(68㎡), 숙박동(262㎡)으로 구성되며, 숙박동은 펜션형과 도미토리(공동침실)로 나뉜다. 펜션형은 최대 10명까지 숙박할 수 있으며 총 5개 호실이다. 도미토리는 6~8인실로 총 4개 호실이 운영된다.

펜션의 숙박료는 1박에 주중 5만 원, 주말 8만 원이고 도미토리 숙박료는 주말, 주중 상관없이 1만 5천 원으로

저렴하다.

아트팩토리는 발명가, 공예가, 예술가들의 작업장으로 관광객들의 체험 공간이 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박 이용이 주말에 집중되는 점을 보완해 주중에도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청은 구청이 직영하는 도시민박촌이 성공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도시민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의 성공을 위해 동구청은 선진지 견학, SNS 홍보, 운영 노하우 전수 등도 진행한다.

도시민박이 활성화되면 168 계단, 김민부 전망대, 편백나무 숲 등과 연계해 산복도로 1박 2일 코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국제영화제(BIFF) 국 300여 편 초청

로, 영상 영화 관련 분야 취업설명회도

축회 만원이다. 이 밖에 영화의 전당과 공동 마케팅을 통해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안도 마련했다.

고, BIFF는 올해 20회를 맞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 100편
하는 과 영화감독을 선정해 발표하는 '아시아 영화 100선' 사업을
라를 준비하고 있다. BIFF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세계 각국
들고 영화감독과 영화평론가 13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 '아시아
채택 영화100선'을 발표한다. 세계 영화인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
업적 신뢰도나 대표성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스코 이 밖에 지난 19년의 역사를 기념하는 특별 책자 발간 등
세 실 기념비적인 사업들을 준비하면서 외형적인 행사보다 영화제
를 연 본연의 의미를 찾는 프로그램 위주로 준비할 예정이다.

가한
키우
비즈
른 전
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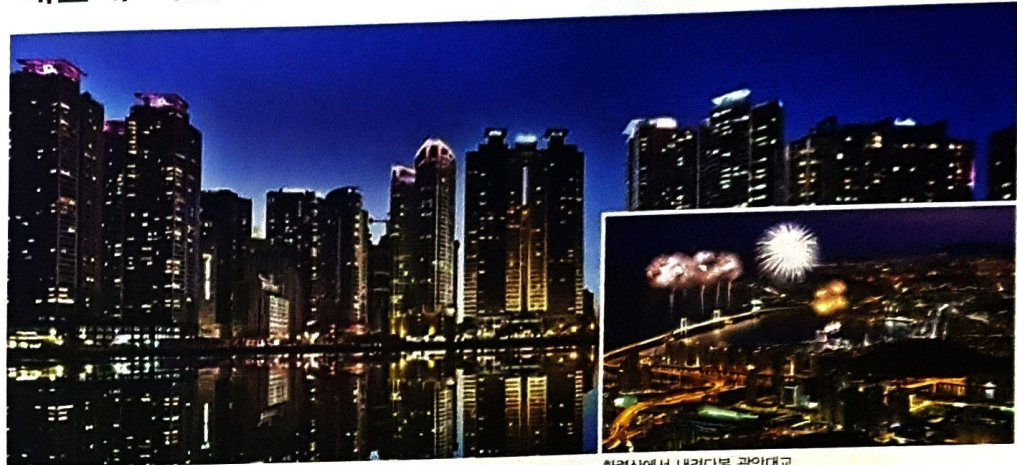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 공개

년을 맞이하는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화제가 20회를 맞는 특별한 해인 만큼 영화 문화 공간으로 성장
당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지로 이번 포스터 주인공
공으로 정했다.



해운대 아름다운 야경 7선에 포토존 설치



동백섬 선착장에서 바라본 마린시티. 해운대구 제공



항령산에서 내려다본 광안대교

해운대구는 관광 컨벤션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해운대
12경 재선정 및 야경 7선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마린시티, 영
화의전당 등 7곳에 포토존을 설치, 관광상품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동백섬 선착장에서 바라보는 마린시티 ▲동백섬 등
대공원에서 바라보는 누리마루와 광안대교 ▲장산에서 바라보는
해운대 전경 ▲해월정에서 바라보는 월출 ▲APEC나루공원에서
바라보는 영화의전당 ▲달맞이언덕에서 바라보는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언덕의 문탠로드 등 7곳을 해운대에서 야경이 아름다운
7대 명소로 꼽았다.

이와 함께 해운대구는 지난 2005년 지정된 기존의 '해운대 12
경'도 새롭게 선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해운대 12경'은 ▲국내 최대의 여류 휴
양지 해운대해수욕장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송정해수욕장 ▲동
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동백섬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이름 높은 달맞이길 ▲가을 역사가 장관을 이루는 장산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연상케 하는 영화의 거리 ▲가덕도 팽나무가 뿌리
내린 도심 쉼터 APEC나루공원 ▲수중 생태계의 모든 것을 체험
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 ▲오래된 정취를 자아내며 해안 절경이
빼어난 동해남부선 옛길 ▲세계적 요트 계류 시설인 요트경기장
▲도심 속 아름다운 어촌 마을 청사포 ▲신라시대 진성여왕이 요
양한 해운대온천이다.

이효영 기자



나루공원에서 바라본 영화의전당



동백섬 공원에서 바라본 누리마루



달맞이 언덕 문탠로드 해월정

한국, 외국 관광객 유치 7년만에 일본에 밀려

엔화 약세, 비자면제 조치, 메르스 직격탄까지 겹쳐 앞으로 더 밀릴 것

일본이 중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서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이는 올해 5월까지의 통계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 따른 관광객 이탈이 반영된 6월 이후 한·일 관광객 유치 격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753만7천8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44.9% 증가하면서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592만4천683명)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07년 이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834만6천969명·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644만8천240명 7년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역전당한 것은 세계 관광시장에서 최대 '큰 손' 역할을 하는 중국인의 일본 방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중·일 갈등에 따른 반일감정 탓에 연간 최소 100만416명에서 최대 131만4천437명 수준에 불과했다. 엔화가 크게 떨어지기 시작한 작년 9월부터 중국인의 발길이 일본으로 급격히 물리면서

지난해 중국 방문객은 전년보다 83.2% 급증한 240만9천158명에 이르렀다.

이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612만6천865명)의 39.3%에 불과했다. 그러나 중국인의 방일이 가속화하면서 올해 5월까지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171만6천400명으로 작년 한해(240만9천158명)의 71.2%에 이르고 있다.

일본이 엔화 약세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커 등 외국인에 대해 비자 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부가가치세 환급정책도 한몫했다. 여기에 반일감정에 덜 민감한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인 중국인 '바링허우'(80後·1980년대 출생 세대) 여성을 중심으로 일본 쇼핑관광이 크게 증가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거리가 가까운데다 콘셉트도 '쇼핑관광'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 관계에 있다"며 "엔화 약세 장기화에도 메르스 직격탄까지 맞은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에서 일본에 더욱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관광객 한국행 감소, 8월까지 이어질 듯



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가 20%정도 더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관광·여행업계에서는 매년 한국 관광에 나서는 중국인들 중 6월부터 8월 사이를 택하는 사람들이 약 35%로 추산하고 있다.

CNBC는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개인부담 없이 보상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외국인 관광객들의 마음을 돌리려 애쓰고 있다면서도, 그런 정책들이 효과를 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에 비해 일본을 찾는 중국인의 수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HSBC 보고서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일본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증가율이 80~140%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메르스 불안 뿐 아니라 지난 1년간 한국 원화에 비해 약 10% 평가절하된 일본 엔화 가치도 중국 관광객이 한국보다 일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라고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불안 등으로 나타난 중국인의 한국 관광 감소 현상이 오는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BC는 HSBC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8월까지 한국

이호영 기자

부산시,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7곳 인정서 수여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는 중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7곳을 지정,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식당은 ▷(주)라비(중구 중앙동) ▷오아제(중구 남포동) ▷더파티(부산진구 범천동) ▷노블리아(동구 초량동) ▷세연정(동래구 온천동) ▷라메르웨딩뷔페(해운대구 우동) ▷흙시루(기장군 기장읍) 등이다. 7곳 중 5곳은 뷔페 식당, 2곳은 한식당이다.

해당 7개 업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식당이면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음식점으로 ▷300명 이상 동시 수용 가능 ▷주 5일 이상 중국인 전용 가능 ▷중국어 메뉴판 제공 및 중국어 응대 ▷일정 규모의 주차시설 등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를 갖춘 업체다.

부산관광협회 관계자는 "한 번에 2000명이 입국하는

크루즈 관광객의 경우 200~300명 규모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한데, 이런 식당 수가 적어 예약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전문식당으로 인증되면 중국인 관광객에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게 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식당들은 중국인 관광객의 입맛에 맞춰 메뉴도 개발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삼계탕 등 한식이나 각종 차와 같이 주문에 따라 별도 메뉴를 제공하겠다고 협의했다"고 말했다.

인증 기간은 오는 2017년 7월까지 2년이며, 인증을 획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산시 지정 중국관광객 전문식당'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이 지원된다. 또 업체 정보를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등을 통해 홍보한다.

국적 크루즈선내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될 듯

정부는 국적 선사들의 크루즈 선에 대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크루즈선 내 오락시설인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선상카지노는 크루즈선의 기본시설로 국적 크루즈선이 취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궁극적으로 국적선 취항이 활발해지고 관광객이 많이 유치되면 국적선이든 외국국적선이든 우리나라를 모항으로 운영하는 크루즈선이 생겨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크루즈산업법에 따르면 국적선이든 외국국적선이든 한국 등 각국의 영해 상에서는 선상카지노 운영은 금지되고 공해상에서만 허용된다. 외국인들은 공해상에서만 운영되는 모 항 선상카지노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내국인들은 도박법에 따라 모든 선상카지노에 출입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은 실제로 외국국적선의 카지노를 이용하

고 있다. 외국국적선에는 한국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고 법원도 선상카지노 출입을 오락으로 간주해 거의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해상에서만 운영되더라도 국적선의 카지노는 한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외국인들만 출입할 수 있고 한국인들은 '국적선박은 한국 영토'로 간주돼 이용할 수 없다. 국적선이 취항하면 국내 선사들은 크루즈 콘텐츠 판매에 있어서 이 같은 역차별을 받아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국적 크루즈선 취항을 성사 시키겠다"며 "우리나라 국민 50만명이 국적 크루즈선을 이용할 경우 운임을 포함해 1인당 지출액을 150만원으로 잡으면 모항인 곳에 7500억원의 엄청난 경제적 낙수효과가 발생해 외국국적 크루즈선 기항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국적 크루즈선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시 세계 속 빛도시 목표 위해 본격 사업착수

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담은 부산의 밤'을 만들 것



부산시는 앞으로 10년간 '부산 빛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세계 속 빛의 도시를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세부 실행계획에서 야간경관 선도사업 대상지 22곳을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북천박물관 시립미술관 등 12곳은 5년 단기사업(2016~2020년), 부산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등 10곳은 10년 장기사업(2021~2025년)으로 분류해 집중도를 높였다.

단기사업 대상지 중 북천박물관은 발광다이오드(LED) 막대를 활용해 건물 상·하부 색온도를 차별화한다. 이에 따라 박물관이 위로 솟구치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시립미술관은 정면 돌출된 4개 면에 미술관 고유의 형상을 투사해 흥미로운 광경을 제공한다.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인 동아대박물관은 조명을 건물 밑에서 위로 비추 풍격을 더하고, 나무·석탑·석상 등 조경물에도 조명을 얹어 문화재적 가치를 높인다.

컨벤션시설인 벡스코는 유리 벽 안쪽에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조명을 달고 이에 맞춘 음향을 가미한다. 주택가에 있는 서구청사는 산책로에 은은한 일축형 조명을 설치해 주민 보행 때 색다른 경험을 주게하고 기장구청사는 푸른색 계열의 투광조명을 사용해 조형미를 부각한다.

부산종합운동장은 주 경기장 하부 기둥을 따라 빛을 아래로 쏘 공중부양 이미지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경기장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강서체육관은 온화한 실내조명을 보완하고 외부 철골에 금속 질감의 조명을 붙여 주야간 명소로 조성한다. 기장체

육관은 지붕과 벽면을 따라 나트륨조명과 흰색 LED조명을 대비되도록 배치해 건물의 곡선미를 살린다.

이 밖에 부산대교와 신호대교에는 아치형을 강조하는 특별한 조명이 부착되고, 일광해수욕장 일원도 세련된 풍경을 자아내는 빛으로 단장한다. 시는 이들 단기사업을 위해 2020년까지 74억 7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이 같은 세부계획 실현을 위해 권역·지역·유형별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두고, 야간경관위원회 및 조례 신설과 행정조직 정비 등의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가 끝나면 오는 12월께부터 새로운 '빛의 계획'이 시행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이야기를 담은 부산의 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산 야간경관 선도사업 세부계획

2016년	북천박물관, 부산종합운동장, 동아대박물관
2017년	시립미술관, 부산대교
2018년	서구청, 신호대교
2019년	기장구청, 강서체육관
2020년	벡스코, 기장체육관, 일광해수욕장
2021~	부산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총렬사,
2025년	부산근대역사관, 부산시청, 영도구청, 강서구청,
(장기사업)	사상구청, 낙동대교, 금정대교, (원스모일파크)



부산시 관광협회 국내여행분과위원회 워크숍

경북·충북·강원 자연기행

겸암 류운룡이 머물렀던 안동 겸암정사, 그림처럼 펼쳐진 하회마을을 하늘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부용대, 서애 류성룡이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 징비록을 썼던 옥연정사. 하회마을 화산을 끼고 도는 곳에 세워져 있는 병산서원, 정도전의 호를 딴 단양 도담삼봉, 정선의 아우라지, 오일장, 스카이워크, 영월 금강정, 그리고 단종 왕의 슬픔과 노여움이 깃든 청릉포, 한반도 뗏목마을 등을 둘러본 이번 1박2일 자연기행은 오래도록 가슴속에 간직될 것이다.

인위적이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 그리고 옛 선인들이 머물렀던 서원, 정자 등을 찾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이번 자연기행은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의 장순복 탐사대장(국내여행 분과위원장)을 비롯, 여행사 대표, 지역언론사, 협회 박성하 사무국장 등 일행이 부산을 출발, 3시간 뒤 안동하회 마을을 하늘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부용대에 도착했다.

부용대 芙蓉臺

부용대는 태백산맥의 맨 끝부분에 해당하며 정상에서 안동 하회마을을 하늘에 조망할 수 있는 높이 64m의 절벽이다. 부용대라는 이름은 중국 고사에서 따온 것으로 부용은 연꽃을 뜻한다. 하회마을이 들어선 모습이 연꽃 같다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하회마을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 부용대라 부른다. 처음에는 '하회 북쪽에 있는 언덕'이란 뜻에서 '북애'라 불렸다. 아래로 낙동강이 굽이쳐 흐르고 있다.

겸암정사 謙庵精舍

부용대에서 10여분 걸어 내려오면 겸암정사다. 안동시 풍천면 광덕리에 있는 겸암 류운룡(柳雲龍:1539~1601)이 세운 정사로 1979년 중요민속자료 제89호로 지정되었는데 조선 중기의 문신인 겸암 류운룡이 세운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쓰던 곳으로 보통 정자와는 달리 서당 구실을 하였다. -자형 바깥채와 -자형 안채가 함께 있는 구조로, 안채는 바깥채 뒤쪽에 있어 정자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안채의 앞면과 뒤쪽



에는 반달 모양의 담장이 둘러져 있다. 퇴계 이황이 쓴 겸암정 현판이 걸린 바깥채는 정자채이고, 안채는 바깥채를 보조하는 살림채이다. 바깥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이며, 가운데에 4칸짜리 대청을 두고 오른쪽과 왼쪽에 방을 마련하였다. 오른쪽 1칸짜리 방 앞에는 대청과 이어진 마루가 역시 1칸이다. 방과 대청의 앞쪽과 옆쪽으로 툇마루를 달고 난간을 설치하였고, 두리기둥에 출처마의 팔작지붕을 얹었다. 안채는 바깥채와 분리되어 있는데 왼쪽부터 부엌 2칸, 안방 3칸, 대청 4칸, 대청 건너 -자 모서리에 2칸짜리 방이 있고, 그 앞에 같은 크기의 방과 1칸짜리 마루가 있다.

겸암정사에서 5분여 걸어 내려오면 옥연정사가 자리잡고 있다.

옥연정사 玉淵精舍

안동시 풍천면(豊川面)에 있는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1542~1607)이 학문을 위해 세운 정사.

1979년 중요민속자료 제88호로 지정되었다. 1586년 화천(花川) 건너 부용대(芙蓉臺) 기슭에 세운 건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류성룡은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을 위해 작은 서당을 세웠다.

문간채·바갈채·안채·별당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며, 화천이 마을을 시계 방향으로 휘감아 돌다가 반대 방향으로 바꾸



는 옥소(玉沼)의 남쪽에 있다. 소의 맑고 푸른 물빛을 따서 옥연정사라고 부른다.

문간채는 왼쪽 남쪽부터 차례로 측간과 대문을 두고 대문 오른쪽에 광을 3칸이나 둔 一자형이다. 바갈채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건물로 정사각형의 4칸짜리, 대청의 오른쪽·왼쪽으로 1칸 반의 방을 두어 대청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8칸 겹집형식으로 부엌이 중앙에 있고 방이 부엌을 중심으로 가로·세로 2칸씩 좌우에 배치되어 있다. 별당채는 바갈채와 안채 사이에 있는데 앞면 3칸·옆면 2칸으로 서쪽 모서리에 2칸 반의 방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마루로 되어 있다. 600여 년 간 안동 하회마을을 지켜온 풍산 류 씨,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선시대 유학자인 겸암 류운룡과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류성룡 형제가 있다. 서애 류성룡은 최근 드라마로 방송되고 있는 '징비록(懲虜錄)'의 저자이며, 이 책을 통해 그는 임진왜란 중에 경험한 사실들을 상세히 기록했다. 드라마에서 서애 류성룡 선생은 경제가이자 진정한 리더의 표본으로서 묘사되고 있어, 안동 하회마을을 찾는 여행자들은 대개 그의 흔적을 되짚어보고 싶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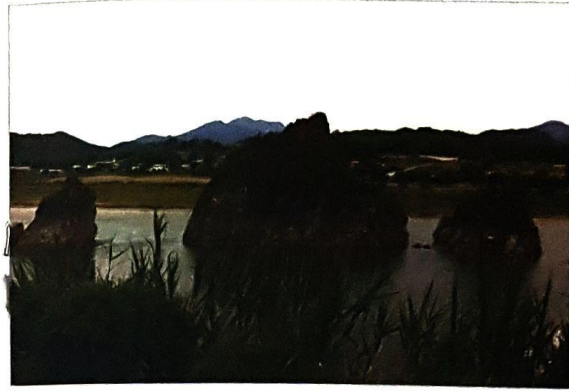
옥연정사를 둘러보고 오솔길을 빠져나와 1km정도 걷다 보면 우리나라 서원 건축의 백미로 꼽히는 병산서원에 닿는다.

병산서원 屏山書院

본디 풍산읍에 있던 풍악서당이었던 것을 서애 류성룡 선생이 후학 양성을 위해 여기로 옮겨왔다.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에도 훼손되지 않은 의미있는 서원이다. 화산을 병풍으로 삼고 낙동강을 연못으로 삼았으니, 빼어난 경관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만대루에 오르면 낙동강과 깎아지른 절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자연을 향해 막힘없이 열린 모습이 깊고 길게 호흡하며 청명함 솜을 얻기에 제격이다. 이와 반대로 병산서원 현판이 걸린 입교당은 속이 팍 찬 당당한 멋을 지녔다. 만대루의 비움과 입교당의 채움, 그리고 하늘을 품은 마당의 모습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여유를 배운다. 느릿느릿 뒷집 지고 걸었던 유교문화질이 병산서원의 고즈넉함과 어우러져 여름의 더위를 씻어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애 선생의 문집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1,000여 종 3,0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도담삼봉 島潭三峯

도담삼봉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있는 명승지이다. 남한강의 맑고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강 한가운데 높이 6m의 늪를 한 장군봉(남편봉)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첩봉(딸봉)과 오른쪽의 암전하게 돌아앉은 처봉(아들봉) 등 세 봉우리가 물 위에 솟아 있다.

이곳은 조선 개국공신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삼봉이라 할 만큼 젊은 시절을 이곳에서 청유하였다 한다. 삼봉은 원래 강원도 정선군의 삼봉산이 홍수 때 떠나려와 지금의 도담삼봉이 되었으며, 그 이후 매년 단양에서는 정선군에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어린 소년 정도전이 '우리가 삼봉을 정선에서 떠 내려오라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길을 막아 피해를 보고 있어 아무 소용이 없는 봉우리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으니 필요하다면 도로 가져가라'고 한 뒤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중주담의 완성으로 약1/3이 물에 잠기게 되었지만 월악산 이웃하여 수상과 육상교통이 개발됨에 따라 교통 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다. 현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주변공사가 한창이다.

경북·충북 자연기행을 마친 일행은 강원도 영월 8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 할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는 금강정에 도착한다.



금강정 鏡江亭

1428년(세종 10)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永興里)에 있는 김복항(金福恒)이 세웠다고 하나 영월재영(寧越齋)에 따르면 이자삼(李子三)이 군수로 있을 때 금강의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여 사재를 들여 정자를 짓고 금강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한편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도 1684년(숙종10)에 금강정에 주위로 펼쳐지는 절경을 바라보며 《금강정기(鏡江亭記)》를 썼다.

김복항이 세운 이후 군수 이아중이 무너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우고, 1792년(정조 16년)에 부사 박기정(朴基正)이 중수하였다고 한다.

1969년과 1976년에 단청을 다시 칠하는 등의 부분 보수를 하였으며 주위에는 낙화암, 민충사, 증조대왕태실비 등의 유물·유적이 있다.

금강강 아래로는 푸른 동강이 흐르고 그앞에는 계족산과 태화산이 자리하여 영월 8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에 세워져 있으며, 단종임금을 따르던 궁녀 10명이 몸을 던져 죽은 낙화암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금강정 주위에 비운의 왕 단종과 관련된 유적이 자리하고 있어 조선시대 대유학자들의 방문과 기록이 이어진 곳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단종의 노여움과 슬픔이 깃든 청령포 淸寧浦

청령포로 가려거든 가슴에 묻어둔 슬픔의 보따리부터 풀어 놓고 가야 된다.

고작 열일곱이었다. 부모 품에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안쓰러운 나이에 숙부에게 옥좌에서 끌려 내려와, 종내는 죽음의 길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200년도 훨씬 더 지나서야 단종이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다. 청령포로 가려거든 가슴에 묻어둔 슬픔의 보따리부터 풀어 놓을 일이다. 강을 건너는 배는 슬픔을 아는 사람만 탈 자격이 있다. 청령포는 풍경을 구경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슬픔을 만나러 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슬픔의 끝에서 희망 한 줌 캐내는 곳이기 때문이다. 진정 슬퍼본 사람에게만, 스스로가 가진 행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진다. 그리고 치유는 나를 제대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청령포는 하늘이 지어놓은 감옥이다. 3면에는 시퍼런 강이 흐르고 단 한 곳 육지와 연결된 곳은 육육봉(六六峯)이라는 암벽이 솟아있다. 게다가 이 섬 아닌 섬은 사람보다는 짐승의 영역이었다. 구중심처에서 살던 소년으로서는 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 무서운 것은 짐승보다 사람이었으리라. 한양의 숙부, 세조가 품은 심검(心劍)에 시시각각 가위 눌렸을 것이다.

먼저 왕이 머물렀다는 어소를 둘러본다. 밀랍인형들만 자리를 지킬 뿐, 왕이나 옛 주인을 모시겠다고 따라왔다는 궁녀들의 자취는 없다. 어찌 인형으로 그 절절한 슬픔을 표현할 수 있으랴. 주인의 죽음을 보고 강물에 몸을 던졌던 궁녀들의 피눈물은 또 어찌 표현할까.



관음송 觀音松 - 단종의 마지막 길 함께한 소나무

청령포 수림지에 위치하고 있는 관음송, 관음송은 단종 유배시의 설화를 간직하고 있으며 1998년 천연기념물 제 349호로 지정되었다. 단종이 유배생활을 할 때 두 갈래로 갈라진 이 소나무에 걸터앉아 쉬었다는 전설이 있다. 소나무 크기는 높이 30m, 둘레 5m로 지상에서 두 갈래로 갈라져 동, 서로 비스듬히 자랐다. 수령은 60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종 유배시의 수령을 약 60년생으로 추정하고 있다.

왕의 눈물을 보았으니 觀이요 황혼녘 폐부를 찢는 오열을 들었으니 淸이다. 두갈래 가지 사이가 않아 울며 시간을 접었을 어린왕을 생각하니 슬픔이 뜨거워진다.



슬픔이 하늘에 닿은들, 찬란한 봄을 어찌 회색으로만 채색할 수 있으랴. 눈을 들어보면 세상은 여전히 환한 빛이 감싸고 있다. 꽃은 다투어 피고 지고 농부들은 보습과 호미로 잠들었던 땅을 깨운다. 이쪽 나루에서 바라본 청령포에도 초록이 가득하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서서 배를 탄다. 단종이 울면서 탔던 나룻배가 아니라 단송에 강을 건너는 동력선이다. 배는 고작 2~3분 거리를 아무 감정도 없이 오간다. 쫓겨난 왕을 생각한다. 그는 어떤 심정으로 강을 건넌을까? 슬픔은 아득한 옛날인데 청령포는 지척이다.

강변의 둥근 자갈에는 시간이 지문처럼 새겨져 있다. 558년 전 그가 걸던 강변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으리라. 돌 하나를 집어 들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왕을 만난다. 그와 함께 소나무 숲을 향해 천천히 걷는다. 모래밭에도 슬픔이 질척거린다.

상왕에서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된 단종이 청령포에 도착한 것은 1457년 6월. 한양에서 50명의 군졸과 이곳까지 오는데 이레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쫓겨난 왕은 노여움과 슬픔을 새겼을 것이다.

청령포 뒷산 육육봉(六六峯)과 노산대(魯山臺)사이 증암절벽 위에 있는 탑으로 단종왕이 유배생활을 할 때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근심속에서도 한양에 두고 온 왕비 승씨를 생각하며 여기저기 훑어져 있는 막들을 주워 쌓아 올렸다는 탑으로 단종이 남긴 유일한 유적이다.

발길을 돌리다 비각 안에 서 있는 검은 비석과 만난다. 앞면에는 端廟在本府時絳紱단묘재본부시유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단종이 이곳에 계실 때의 옛터'라는 뜻이다. 영조의 친필이라고 한다. 어소를 향해 엎드리다시피 굽은 소나무도 쓰다듬어 본다. 확성기를 든 해설사는 '총절의 소나무'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강조하지만 사람이 못한 총절을 어찌 나무에게 바랄까.



문헌해설사와 함께



단종 어소마루



단종이 남긴 유적 망향탑



단묘재본부시유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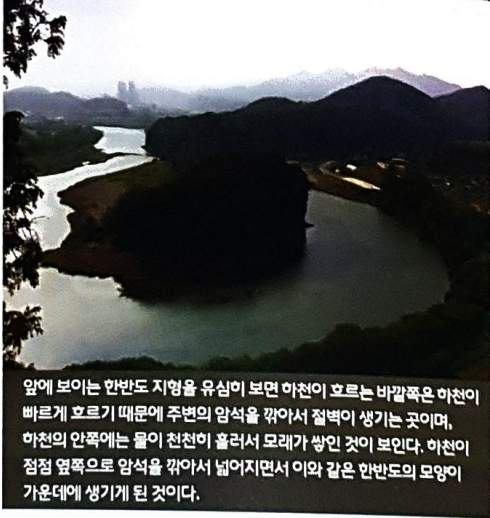
어소왕 총절의 소나무

아우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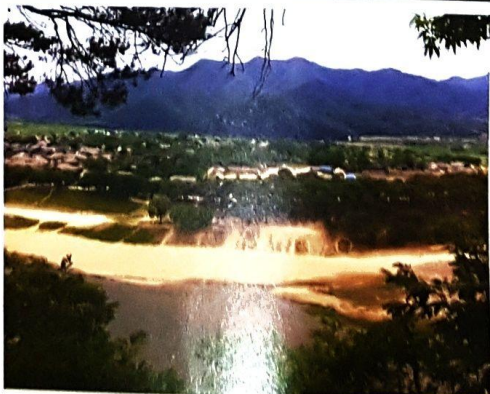
아우라지는 강원도 정선군의 지명으로 정선군 여량면 여량5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골치천과 송천이 합쳐져서 한강의 본류(조양강)를 이루는 곳이다.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는 뜻으로, 두 물줄기가 어우러져 한강을 이루는 데에서 이 이름이 유래했다. 또한 이곳에 있는 나루터를 일컫기도 한다.

아우라지는 정선아리랑 유적지로도 유명하다.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을 나누던 처녀 총각이 싸리골로 동백을 따러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간밤에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줄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자 그림과 안타까운 심정을 노래하여 "아우라지 뱃사공아 날 좀 건네 주게 / 싸릿골 울동박이 다 떨어진다 / 떨어진 동박은 낙엽에나 쌓이지 / 사시장철 님 그리워서 난 못살겠네"라는 가사가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기리기 위한 '아우라지 처녀상'과 이 노래의 가사를 비로 새긴 '아우라지 노래 가사비'가 세워져 있다.

btjbusan@hanmail.net



앞에 보이는 한반도 지형을 유심히 보면 하천이 흐르는 바깥쪽은 하천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주변의 암석을 깎아서 절벽이 생기는 곳이며, 하천의 안쪽에는 물이 천천히 흘러서 모래가 쌓인 것이 보인다. 하천이 점점 옆쪽으로 암석을 깎아서 넓어지면서 이와 같은 한반도의 모양이 가운데에 생기게 된 것이다.



보양사에서 내려온 하천이물

43회째 맞이하는 역사와 전통의 『강진청자축제』 개최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 일원 8월 1~9일까지

모든 생명의 근원인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혼이 담겨야 빛을 낼 수 있는 청자, 그 천년의 혼이 고스란히 살아나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된 문화의 장 강진청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자 예술품으로, 비색상감무늬는 기술과 아름다움의 극치로 표현되고 있으며, 인공을 떠난 천공의 경지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고려청자의 80%를 만들어 낼 만큼 청자 문화의 절정을 꽃피운 청자의 본 고장 강진. 전국 400여 개의 도자 가마터 중 절반에 가까운 188개소가 강진에 현존한다.

이런 배경 아래 강진에서는 600여 년 동안 단절됐던 천 년 전 선열들의 숭고한 예술혼을 길이 보존하고, 명품 고려청자의 비법을 계승·발전시켜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자 지난 1973년부터 매년 강진청자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올해로 43회째를 맞이한다. 청자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청자축제의 역사도 타 축제에 비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성과 전통은 청자에 관련된 각종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청자 학술 심포지엄은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려청자와 강진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청자축제 개최하는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이나 '도예작가 워크숍', '고려청자 특별전' 같은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청자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져주고 있다. 이러한 각종 프로그램은 『강진청자축제』가 진행될수록 청자에 대한 연구와 참여를 확대해 강진청자가 과거의 유물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청주는 역량을 하고 있다.

청자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청자체험도 즐길 수 있다. 불꽃의 열매인, 청자조각하기, 청자상감해원, 청자 소고그림 제작체험 등 20여 종의 청자 체험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자란다.

축제 기간 중 진행되는 강진청자 할인 판매를 통해 청진군

진청자를 평소의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강진군외와 민간요에서 생산된 다양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맛의 1번지 달걀 축제장 내 대형 등 형태로 설치된 향토음식관에서는 남도음식을 마음껏 맛 볼 수 있다. 향토음식관은 쾌적한 시설과 친절함 서비스, 깨끗한 위생 설비로 조성되어 있어 즐겁고 편안하게 음식을 즐길 수 있다.

축제장에는 관광객들을 위한 각종 피서시설을 마련하고 있다. 축제장 도로 곳곳에 여름 무더위를 식혀 줄 그늘막과 우산 터널을 확대 설치하고, 실개천 생태와 연꽃 피는 모습을 수경원과 어린이 물놀이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관광객의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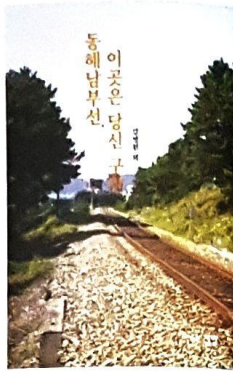
청조적이고 특색적인 축제장 조성도 행사 운영으로 명품문화로 거듭나고 있는 『강진청자축제』, 『강진청자축제』를 통해 청진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진군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청자축제』를 통해 청진군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진군을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철길 '동해남부선 이곳은 당신들의 구간'

당신의 마지막 약속인지 모른다 동해이다가 겨울이면, 지우지 말라
 오래된 철길을 따라 돌인 무수한 첫들, 고개 돌리지 말라
 해 뜨는 바다, 해 지는 미역을 따라 되고 지연 눈빛들, 너리지 말라
 추억은 랑풍보다 크고 깊은 햇살이네, 자부수의보다 넓고 푸른 그늘이네
 철길을 밟고 있다 그 길을 달리던 하늘과 땅과 사랑, 그 애환은 운회를
 우리의 마지막 약속인지 모른다 절레꽃 향기 넘치는, 제발 걸어야 하라
 천천히 걸어야 저음인듯 마지막인듯 언제나인듯 걸어야
 부상의 마지막 걸인지 모른다 끝내 우리가 손잡고 걸어야 할
 저 동해남부선 옛 기차길
 누군가 두고 있는지 모른다 저 문물한 줄이 겨울엔, 모든 해 말라'

(시 '정말, 그 길은' · 김수우)



부산작가회의 소속 시인 47명이 소란스럽던 기타 소리가
 멈춘 곳, 동해남부선 미포에서 송정구간 폐선부지 상업적 개
 발에 반대하는 시 47편을 썼다.

부산작가회의는 이 47편의 시에다 관련 사진을 담아 사회
 집(명시선) '동해남부선, 이곳은 당신 구간' 을 펴냈다.

부산작가회의는 지난해 3월부터 작품을 모으다 세월호 참사
 로 중단했던 작업을 지난 2월 다시 시작해 결실을 봤다. 부산
 작가회의 서정원 회장은 "해운대 미포와 옛 송정역을 잇는

이 아름다운 풍광의 철길을 시민의 공간으로 지켜내기 위해
 힘을 모았다"며 "시작은 시인들의 작은 몸짓이지만 예전 '영
 도다리 살리기' 운동 때처럼 가랑비에 옷 젖듯 변화를 이끌
 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작가회의는 '동해남부선, 이곳은 당신 구간' 1쇄를 우
 선 1천 권 발간했다. 이 사회집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면서 모
 금운동도 함께 진행해 사회집을 계속 찍어낼 계획이다.

김대현 기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자연친화적인 관광진흥시설로 제한

폐선부지 전체 9.8km구간, 공원/산책로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해운대 미포~옛 송정역 4.8km 중 일
 부 구간에 대한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가 시민계획단 라운드
 테이블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조만간 시작된다.

부산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산시의회의 대회의실에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 3차 라운드'에서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상업개발 반대 여론을 고려해 수정된 사업자 공모안
 을 공개했다.

공단은 '민간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에서 개발 가능한
 사업을 '자연 친화적인 관광진흥시설'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지형 특색 및 자연환경과의 조화 ▷자연 훼손 최소화 ▷교
 통 개선대책 수립 ▷옛 송정역사의 근대화재 활용 ▷시의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과 연계해 양방향 보행자 흐름 확보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이 기준을 근거로 이달부터
 60일간 사업 주관자를 공모하고, 라운드 테이블의 논의를 거
 쳐 내년 1월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단
 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회사(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교통국장은 "폐선부지 전체 9.8km 구간에 공원과 산책
 로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진다"며 "미포~옛 송정역 4.8km 구
 간도 평균 너비 11~12m 중 민간개발이 이뤄지는 산지 쪽
 5~6m를 제외하고 바다 쪽은 모두 산책로로 조성할 것"이라
 고 말했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엔

80여개 공연팀 문화행사 다채, 테마가 있는 콘서트 등 눈길
 8월 1일~17일 부산바다축제, 8월 15일~17일 광대연극제 열려



객들의 환호 소리로 채워질 계획이다.

올해로 9년차를 맞은 행사는 80여개의 문화공연팀이 참가
 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바다와 광안대교의 환상적인 야경을 배경으로 780m에 이
 르는 도로가 무대가 되고 객석이 되어 공간별로 공연, 연극,
 음악, 미술 등을 즐길 수 있는 공연장이다.

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7일까지는 부산바다축제가 개최되
 고 8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수영구 만남의 광장 특설무
 대에서 광대연극제가 열리면서 수준 높은 연극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수영구 관계자는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은 많은 분들이 단
 순하게 여름철 피서를 위한 공간뿐 아니라 아름다운 풍광 속
 에서 공연과 예술 체험을 통해 한 여름밤 즐겁고 아름다운 추
 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효영 기자

8월 31일까지 광안리해수욕장 해변로(연양삼거리~만남의
 광장)에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열리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자동차 경적소리 대신 신나는 음악과 관

해운대해수욕장에 토요일이면 '움직이는 동상'이

관광객 인기몰이 새로운 명물 탄생, 구청 거리예술단 양성계획

얼마전부터 해운대해수욕장 입구에서 매주 토요일 낮 12
 시부터 2시간동안 올해 처음으로 '움직이는 동상' 공연을
 펼치고 있다.

'움직이는 동상' 공연은 몸을 동상처럼 꾸며 움직이지
 않다가 관광객이 관심을 보이면 갑자기 움직이는 퍼포먼스
 로 지켜보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한바탕 웃게 만
 든다.

흔히 유럽과 남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연이지만 해운
 대해수욕장에서 정기공연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공연은 길거리 화가·버스킹·바이올린 연주자·
 사진작가 등 4분야의 테마로 구성됐다.

해운대구는 지난 4월부터 2기 문화일자리사업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일반주민 7명을 '거리예술단'으로 양

성하기 위해 행위예술가로부터 하루 4시간씩 마음 지도를
 받으며 실력을 쌓았는데 8월 16일까지 시범공연을 펼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리예술단의 '움직이는 동상'은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
 운대에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시
 행하는 단순노동 중심의 정부일자리 사업의 틀을 깨고 행
 위예술가를 양성해 문화일지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도는
 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거리예술단이 앞으로 일정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인근 호텔 등 관광업계 행사와 연계하는 방
 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움직이는 동상은 해운대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여행지는 일본·중국·홍콩·태국·필리핀 순, 여름에는 유럽, 겨울에는 동남아 선호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언급된 해외여행지는 일본(4만9천375회), 중국(2만4천561회), 홍콩(2만665회), 태국(1만5천824회), 필리핀(1만3천58회) 순이었다. 이들 국가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계절에 따라 선호하는 여행지에도 차이가 있었다. 여름에는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유럽국가를, 겨울에는 대만, 캄보디아, 뉴질랜드를 언급했다. 이 국가들은 계절별로 나눠서 분석했을 때 순위가 변동이 있는 곳이다. 휴가철 외국에서 보내는 이유는 월가.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한 국가에서 '쇼핑'을 하거나, 멋진 '야경'을 구경하러 간다는 게 다음소프트의 분석이다. 2013년부터는 '힐링' 하러 외국으로 떠난다는 언급도 늘고 있다.



해외여행을 누구랑 떠느냐에 따라 여행의 성격이 달라졌다. '친구'와는 '이르비트'를 해서 번 돈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으며, '가족'과는 휴양지 느낌이 나는 '세부', '괌', '푸켓'에서 '골프'를 치거나 '마사지'를 받았다. 친구와의 배낭여행에서는 돈이 부족한 만큼 '쇼핑'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했으며, 가족여행에서는 '쇼핑', '수영', '스포츠' 등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숙소는 2010년부터 매년 호텔과 리조트가 1~2위를 차지했다. 2011년부터는 게스트하우스가 유스호스텔을 밀어내고 3위 자리에 올랐다. 2013년 처음 등장한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엔비'의 작년 언급량은 전년보다 4배로 늘어났다.

이효영 기자

해수부, 관광·휴양·레저형으로 어항 개발계획 수립

해양수산부는 어촌주인의 소득 증대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 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국가어항 유형별 개발모델 설정 △국가어항 브랜드 개발 및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 △아름다운 어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어촌 마리나역(驛) 육성 개발계획 수립 등이다.

국가어항 유형별 개발모델은 109개 국가어항과 배후 어촌이 보유한 자원에 주목해 레저관광개발 여건이 양호한 국가어항 70개소를 선별하고, 복합관광형(23개소), 휴양문화형(19개소), 어촌레저형(28개소) 등 총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다.

국가어항 브랜드 개발 및 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은 해양관광명소로서의 어촌·어항의 인지도를 높이고 개발 유형별로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홍보마케팅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가 어항 영문명을 활용한 'K-PORT'는 다

양하게 디자인을 변형해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름다운 어항 사업은 국가어항에 경관적·생태적·감성적·문화적 가치를 더해 방문객들이 심미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어촌·어항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해에 해역별로 대상 어항 4개소를 선정했으며 각 항별로 아름다운 어항 개발에 약 15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어촌 마리나역(驛) 사업은 해양레저활동이 공존하는 어업겸용 소규모 마리나 시설로서, 어업활동 공간과 구분돼 해양레저활동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계하는 '해상간이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사업 대상항 16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국가어항 레저관광개발은 새로운 해양관광명소로서 어촌·어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미래지향적 레저관광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괌 국제노선 에어부산 신규취항

에어부산은 15번째 국제선 노선인 부산~괌 노선을 신규 취항했다. 에어부산의 15번째 국제선 노선인 부산-괌 노선은 주 4회(수·목·토·일) 운항되며, 부산을 출발하는 BX612편은 오후 10시 5분 출발해 다음 날 오전 3시 10분(현지 시간) 도착하고, 현지에서 출발하는 BX611편은 오전 4시 10분(현지시

간) 출발해 부산에 당일 오전 7시 10분 도착한다. 에어부산은 괌 취항을 기념하고자 취항 특가 항공권도 판매한다. 탑승 기간은 7월 19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이며, 왕복총액운임은 29만 7천200원부터다. 에어부산 홈페이지(airbusan.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해운대에 가면...

반 고흐의 알리스 캥 가로수 길 닮은 산책로가...



반고흐의 알리스 캥 가로수길,

부산환경공단 해운대 사업소 산책로

이효영 기자

해운대 부산환경공단 해운대사업소에서 송정까지 이어지는 100m의 산책로에 네덜란드 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풍경화 알리스 캥의 가로수 길과 닮은 산책로가 있어 고흐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메타세콰이어가 양옆으로 심어져 있어 한적하고 조용해 사색하며 걷기에 딱 좋은 곳으로 2014년 KNN 아름다운 가로수길 사진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 우수관광상품 공모로 5개상품 선정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부산 우수관광상품' 공모 결과 최종 5개 상품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뽑힌 우수관광상품은 일본, 미국 한인 교포, 동남아 등 관광객 타겟별로 특화된 것이 특징이다.

업체별 관광상품은 ▷일본인 대상 국제시장, 감천문화마을 등 현지체험형 상품인 (주)삼진여행의 '무한감동 부산재발견' ▷미국 한인교포 대상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주)삼호투어먼트래블의 'Mad for 부산, 부산에 빠지다' ▷국내 관광객 대상 트레킹 코스를 엮은 (주)아크투어의 '응답하라 부산! 산민디&브릿지 투어' ▷동남아 관광객 대상 부산과 경주를 융

합한 (주)제인투어디엔씨의 'Let's Go! 낭만의 도시 부산&천년의 역사 경주' ▷영화도시 부산을 즐길 수 있는 (주)한세투어의 'Busan Movie&the City' 이다.

관광공사는 선정된 여행사에 예비 우수관광상품 인증서와 함께 상품개발 지원금 및 고객 실적에 따라 업체당 분기별 최대 300만 원, 연간 최대 12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공사와 함께 현지 설명회 참가 및 세일즈를 등 공동 마케팅에 참여할 예정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메르스로 지역 관광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우수 관광상품을 통해 타깃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시티투어버스 3개소 신규코스 추가 운행 확대

태종대 노선 민간 시티투어 2층 점보버스 운행



부산관광공사는 스카이라인투어 코스와 이층 버스 야경투어, 호텔경유 야경투어 등 3가지 신규코스를 추가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인 투어 버스는 지난 5일부터 운행을 시작, 매일 오전 9시40분 부산역에서 출발해 감만부두~백운포(신선대)~오륙도~용호만터미널~대남교차로~황령산봉수대~부산역을 경유한다. 이층 버스 야경투어는 부산역~광안리~수영강~마린시티~동백섬~광안대교~부산역 코스로 다음 달 말 운행될 예정이다. 관광공사는 야경투어 코스 일부 시간대에 한해 해운대 주요 호텔 입구를 정류장으로 넣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산시티투어 버스 노선은 순환형(태종대 방향, 해운대

방향) 코스 2개와 테마형(역사문화 탐방, 해동용궁사, 을숙도 자연생태, 야경) 코스 4개다.

그리고 부산시는 지난 14일부터 최초의 민간 시티투어버스를 운행했다고 밝혔다. 민간 시티투어는 그동안 부산관광공사가 운영하던 '태종대' '해운대' 노선 중 태종대 노선을 분리해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태종대 노선은 부산역을 출발해 영도대교~하늘전망대~75광장~태종대~국립해양박물관~오륙도~용호만 유람선 터미널~UN평화공원~송도해수욕장~BIFF광장~자갈치로 돌아 부산역으로 돌아오며, 탑승권 가격은 1만5000원이다. 해운대 노선과 환승할 때는 5000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태종대 노선에는 5대의 점보버스가 투입된다. 이 버스는 높이 4m, 길이 12m 규모로 기존 시티투어버스보다 크고 편리해졌다. 세계 각국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에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5개 국어 안내시스템이 구축됐다.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든 시티투어 코스와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들을 수 있다. 전 좌석에는 전용 케이블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도 있다.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매단 것은 물론 휠체어 탑승 턱과 고정 벨트를 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덜었다. 항상 개방된 형태인 관광공사의 버스와 달리 민간 시티투어버스는 천장을 여닫을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운행이 가능하다. 김무용 기자

송상현 광장에 시티슬라이드 페스타축제 추진

부산시설공단은 다음달 7일~17일까지 송상현 광장에서 대형 워터슬라이드(풍선놀이로 만든 미끄럼틀)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시티슬라이드 페스타는 도심의 한복판에 긴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색다른 물놀이를 즐기는 축제다. 시티슬라이드는 영국 런던,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주 시드니, 프랑스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곳곳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형 워터슬라이드를 타는 이색적인 체험이 가능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부대 행사를 즐기며 무더위를 잊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SNS를 통해 홍보와 예약 등이 추진된다. 워터슬라이드는 최소 50m에서 최대 700m 가량으로 기다랗게 생긴 송상현광장의 3개마당-문화마당, 다이아믹부산마당, 역사마당-가운데 가장 길고 가파른 다이아믹부산마당에 350m 워터슬라이드가 설치된다.

부산시설공단 관계자는 "광장 이용 문제와 보호메트를 까는 등의 안전 문제, 축제 뒤 원상복구 문제 등 세부적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며 "바다에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은 큰 유인력이 없기 때문에 도심인 송상현 광장에 워터슬라이드 등 물놀이 시설을 설치하고 싶다는 문의가 여러 곳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 의료관광 유치위해 맞춤형 10대 특화검진상품개발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지역 의료기관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10대 특화검진상품'을 내놨다. 외국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학병원 3곳, 종합병원 4곳, 전문병원 9곳 등 의료기관 16곳을 중심으로 의료관광객 요구에 맞춰 특화된 건강검진상품을 개발, 홍보에 나섰다.

10대 특화검진상품은 암, 척추·관절, 갑상선, 구강, 근골격계, 뇌, 심장, 치매, 유전자검사, 웨딩검진 등. 상품별 가격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다양하다. 특히 10대 특화검진상품을 이용한 의료관광객에게는 부산지역 주요 관광지 숙박/체류/쇼핑시설과 음식점 28곳의 5~75%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부산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쇼핑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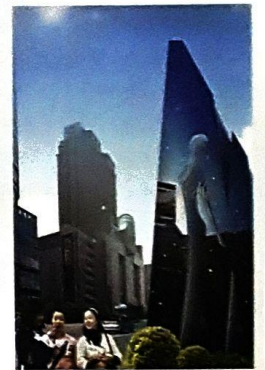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우선 부산을 많이 찾는 러시아 의료관광객들을 위해 러시아어로 된 10대 특화검진상품 쿠폰북을 제작해 한국관광공사 모스크바 지사와블라디보스토크 지사 등을 통해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러시아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언어권별 쿠폰북을 만들어 마케팅에 나설 예정이다. 10대 특화검진상품은 상품별 정확한 가격을 명시한 것이 특징. 부산 의료관광의 투명성을 높여 해외 의료관광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개별 환자가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인근 의료관광객 위해 호스피털 조성

부산진구는 의료관광을 위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인근 부암동 690 일대에 면적 2만 2300㎡ 규모의 '메디컬빌리지'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6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공모해 약 35억 원의 예산을 따냈다.

메디컬빌지가 세워질 부암동 이 지역은 2005년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재개발 사업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한 곳도 없어 지난해 지정 대상에서 빠졌다. 메디컬빌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메디컬빌지는 메디컬스트리트 이용객들의 입원시설(공동 호스피털)로 이용된다. 성형수술 등을 위해 메디컬스트리트를 찾는 의료관광객들은 대부분 호텔 등에서 수술 후 휴식을 취한다. 이 때문에 저렴한 입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간병인 전문 교육시설 등도 들어선다. 지역 내 저소득 계층 등이 간병인 교육을 받고, 메디컬스트리트로 일자리를 구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의료관광 마케팅 2년 연속 '대상'

부산시가 최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메디컬 아시아 (MEDICAL ASIA) 2015' 시상식에서 글로벌 마케팅 광역차세대 부문 대상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 수상이다. 동아닷컴, 머니투데이, 중국신문 등 한·중 언론 3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메디컬 아시아'는 우리나라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상이다.

시는 '의료산업 고도화 2030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해외 의료관광 관계자 초청행 투어, 크루즈 의료관광객 유치 등 차별화된 의료관광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펼쳐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

았다.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서도 통역 인력들을 운영하고, 외국인 임시부 유치업체에는 임시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관광시장 다변화,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신규사업 발굴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UN 참전용사 유가족 건강검진,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캠프 투어 등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규모 첨단 메디컬 타운 조성 등을 통해 부산을 장기 체류·휴양형 글로벌 의료관광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호텔가소식

롯데호텔 부산

물놀이예 카테일까지~ 시원한 특전들만 가득!
롯데호텔부산 여름 한정 '쿨쿨 패키지 4종'

롯데호텔부산은 8월 31일까지 한여름 '쿨쿨 패키지' 4종을 선보인다.

'쿨(Cool)' 패키지에는 디럭스 객실 숙박, 피트니스 클럽 내 실내외 수영장 추가 2인(최대 4인) 이용 혜택, 아이스 텀블러 1개 및 테이크아웃 아이스 커피 1잔이 포함됐다. 가격은 기간과 요일에 따라 상이한데 7월 초 주중 기준 18만원부터(이하 봉사료 및 세금 불포함)다.

'쿨 비치(Cool Beach)' 패키지를 선택하면 디럭스 객실 숙박에 조식 뷔페 2인 이용 혜택, 실내외 수영장 추가 2인(최대 4인) 이용 혜택 및 트로피컬 카테일 2잔이 추가로 제공된다. 가격은 22만원부터.

아이와 함께 셋 이상이 여행한다면, '쿨 샤워(Cool Shower)'를 이용하는게 좋다. 더블과 싱글 침대가 하나씩 들어간 디럭스 패밀리 트윈 객실에서 숙박할 수 있고, 프리메라 베이비 선 쿠션과 프리메라 6종 트래블 키트가 제공된다. 실내외 수영장 추가 2인 이용 혜택도 포함 돼 4인 가족



이 함께 호텔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5만원부터다.

이런 저런 특전 없이 가장 저렴하게 예약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디럭스 객실 숙박만 특가로 판매하는 '서머'를 이용하면 된다. 이 패키지는 16만원부터로 판매되며, 하루 10개 객실 한정이라 이른 예약이 유리하다.

한편, 롯데호텔부산은 투숙객들의 기준 인원내 한해 피트니스 클럽 내 수영장, 사우나, 체력장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호텔의 피트니스 클럽은 재단장을 마치고 올해 새로 개장했는데, 특히 실외 수영장을 개장하는 여름에 더욱 매력적이다.

호텔은 또 투숙객에게 1실 최대 4인까지 부산 투어 프로그램 '엘티이 로드(L.T.E ROAD)'의 1개 코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사전에 엘티이 로드까지 예약해 두면 전담 투어 컨설턴트와 함께 전용 차량으로 부산의 명소를 둘러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문의 및 예약: 롯데호텔부산 객실예약 051-810-1100>



PARADISE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텔 내에서 현금 없이도 마음대로 먹고 편리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바캉스 크레딧 패키지'를 17일부터 8월 말까지 판매한다. 바캉스 크레딧은 호텔 마일리지 포인트와는 별개의 서비스로 호텔 숙박기간 동안 내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호텔에서 고객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 패키지를 구입하면 고객의 객실 키 카드(Key Card)에 호텔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7만 바캉스 크레딧(VC)이 적립된다. 패키지 가격은 28만 원부터(세금 및 봉사료 별도, 성인 2인 어린이 2인 기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여름 휴가철이 오기 전 프리미엄 급 객실을 2박 하면 1박을 추가로 더 주는 '프리미엄 2+1 패키지'를 선보인다. 기간은 다음 달 1~16일 일~목요일이다. 프리미엄 디럭스 객실(오션 더블)과 객실 내 응접실이 있는 주니어 스위트 객실(도심뷰)이 대상이다. 혜택은 프리미엄 급 객실 3박(무료 1박 포함)과 야외 오션 풀 및 사계절 힐링 충전소 '오션스파 씨메르' 이용(1박 2회씩), 오션 라이브러리 이용 등이다. 프리미엄 디럭스 객실은 70만 원, 주니어 스위트 객실은 80만 원이다. 세금 및 봉사료 별도.

문의 및 예약 : (051)749-2111~3

호텔가소식



노보텔 엠배서더 부산

노보텔 엠배서더 부산의 로비층에 위치한 씨스케이프스는 여름을 맞아 보양 특선 점심 메뉴로 '한방삼계탕(사진)'을 판매한다. 이 특선 메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황기, 달고 따뜻한 성질의 해독작용에 좋은 감초 등의 한방 재료로 만든 육수에 국내산 영계와 인삼, 대추, 생강, 마늘, 찹쌀 등을 넣고 푹 끓였다. 부족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보충해 몸의 원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물론 특별한 노하우로 우려낸 한방 육수의 깊은 맛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가격은 2만1000원.

노보텔 엠배서더 부산 '테라스 카페'는 콩, 블루베리, 파프리카, 시금치, 토마토, 브로콜리, 연어 등 '슈퍼푸드'를 재료로 특선메뉴(사진)를 준비했다. '크랜베리 고르곤졸라 피자', 빈혈 예방과 면역력 강화 및 항암 효과가 있는 시금치와 말린 토마토가 들어간 '비스마르크 피자', 이탈리아식 멸치 첫갈인 엔초비와 부추로 만든 '엔초비 부추 파스타' 등이다. 소프트 드링크 또는 아메리카노 한 잔도 함께 제공된다. 가격은 2만5000원부터. 세금 및 봉사료 포함.

문의 및 예약 : (051)662-6267

부산웨스턴조선호텔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은 다음 달말까지 뷔페 레스토랑 까말리아와 아이리쉬펍 오킴스에서 'Tasty Aussie Beef' 프 로모션을 마련해 호주정청우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선보인다. 까말리아에서는 그릴에 담백하게 구워낸 꽃등심, 안심을 비롯해 소뼈 육수에 삶아낸 도가니찜과 과일을 넣은 간장 소스로 맛을 낸 갈비찜을 선보인다. 오킴스에서는 등심, 안심, 립아이, 양고기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하는 코스 메뉴를 선보

인다. 오킴스 코스 메뉴에는 신선한 해산을 에피타이저와 주 방장 추천 디저트, 부산 웨스턴조선호텔의 시그니처 커피 카페 누오바가 제공된다. 까말리아(051-749-7434)의 가격은 점심 6만9000원, 저녁 7만9000원이다. 오킴스(051-749-7439)의 코스메뉴는 메인 종류에 따라 6만7000원~7만 1000원이다.

문의 : 까말리아(051-749-7434), 오킴스(051-749-7439)



해운대그랜드호텔

해운대그랜드호텔 1층에 위치한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 블에서 8월 23일까지 여름 시즌의 하이라이트 메뉴, 바비큐 뷔페를 선보인다.

즉석 라이브 스테이션에서 쉐프가 직접 구워주는 바비큐 의 종류로는 양갈비구이와 소갈비구이, 소등심, 왕새우, 닭고기 등을 만날 수 있고, 바비큐와 어울리는 와인으로 파머스

테이블 메리트지(미국/BTL 45,000원, GLS 9,000원), 알리 와일드 스와 까베르네 소비뇽(칠레/BTL 35,000원, GLS 7,000원) 알리 와일드 스와 소비뇽 블랑(칠레/BTL 35,000 원, GLS 7,000원)을 만날 수 있다. 바비큐 뷔페와 함께 행복한 맛의 썸머 타임을 즐겨보자

문의 : 뷔페레스토랑 [그랜드테이블] (051) 740-0611



2015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한민국 100대 관광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다양한 의견과 여러가지지를 수집 종합하여 추천할 만한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를 선정했다.



1 부산 3곳

1. 한국 산토리니 감천문화마을
2. 태종대
3. 해운대

2 서울 9곳

1. 서울 5대 고궁
2. 인사동
3. 북촌한옥마을
4. 명동거리
5. 남대문시장
6. 광장시장
7. 동대문디자인플라자
8. 북한산
9. 남산N서울타워

3 경기도 8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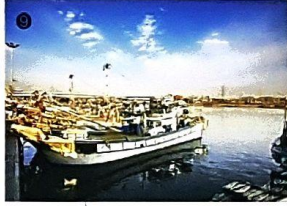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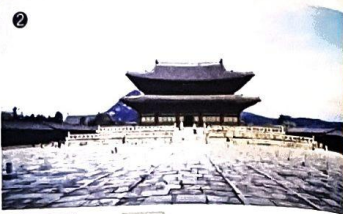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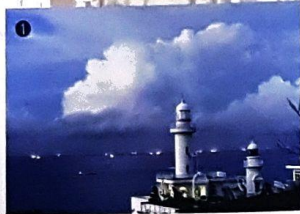
1. 수원 화성
2.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3. 가평 뿌띠프랑스
4.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5. 포천 하브아일랜드
6. 양평 두물머리
7. 용인 에버랜드
8. 용인 한국민속촌

4 충남 5곳

1. 서천 국립생태원
2. 태안 안면도
3. 공주 무령왕릉
4. 부여 부소산성
5. 서산 해미읍성

5 충북 3곳

1. 단양팔경
2. 괴산 산막이 옛길
3. 보은 속리산 범주사



6 전북 8곳

1. 전주 한옥마을
2. 군산 시간여행 (근대문화유산)
3. 부안변산반도
4. 임실 치즈마을
5. 고창 선운산
6. 정읍 내장산
7. 순창 강천산
8. 무주 덕유산

7 전남 9곳

1.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2. 담양 죽녹원
3. 곡성 삼진강 기차마을
4. 보성 녹차밭
5. 순천 낙안읍성
6. 해남 땅끝관광지
7. 여수 오동도
8. 신안 증도
9. 여수 향일암

8 대구광역시 3곳

1. 근대골목
2. 방천시장과 김광석 다지기길
3. 안지랑 굽창골목

9 경남 11곳

1. 창녕 우포늪
2. 함천 해인사
3. 통영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4. 통영 동피랑마을
5. 장사도
6. 소매물도
7. 진주성
8. 남해 다랭이마을
9. 남해 독일마을
10. 거제 해금강
11. 지리산올레길

10 경북 9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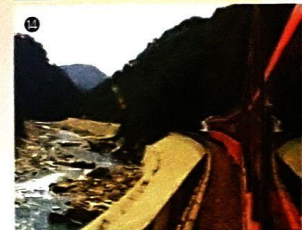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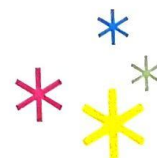
1. 울릉도와 독도
2.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3. 안동 하회마을
4. 백두대간 협곡열차
5. 영주 부석사
6. 경주 안압지와 첨성대 일대
7. 문경새재
8. 소백산
9. 고령 대가야 고분군

11 울산광역시 2곳

1. 반구대 암각화
2.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12 제주도 11곳

1. 성산일출봉
2. 우도
3. 사려니숲길
4. 비자림
5. 중문관광단지 대포해안
6. 섬지코지
7. 쇠소깍
8. 산굼부리
9. 김영갑갤러리 두모악
10. 한라산
11.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老年斷想 [노년단상]

나이가 들면서 행동반경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 찾는 이가 줄어들고 찾아 갈 곳도 한정되었다. 어릴 때 자랐던 바닷가 갯내음이나 황토 냄새가 그리고 허기진 심신이 따뜻한 걸 자주 찾는다. 밥벌이에 매여 있던 일이 끝나면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며 한담하는 시간이 소중한 일과가 되었고 홀로 산책하거나 가까운 도서관이나 미술관을 찾는 일도 새로운 소일거리가 됐다. 옛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그럴 땐 남은 자의 마음은 적막해서 말이 줄어들었다. 어느새 내 인생에도 가을이 찾아왔나보다. 물러설 때가 되었고 마음을 비울 나이에 이르렀구나. 늦은 아침과 적당한 게으름은 가족들에게도 익숙해져 서서히 비켜서고 벗어남이 자연스러웠으므로 황혼의 해방이 순조롭게 시작되었나 싶다. 세월의 손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리고 조응한 노년을 맞이하고

不誠無物이라던가?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성실해야 한다는데 그게 황혼에 접어든 인생에게도 다를 바가 없나보다.

친구들을 만나면 풍진을 반추하기보다는 철없던 어린 시절과 바람이나 구름 그리고 꽃과 나무를 얘기 할 것이다. 비켜선 나이에 세상일을 떠벌리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사계의 흐름과 노년의 시간은 옥심이 없고 아늑해서 서로 닮아 있으므로 산전을 찾아 새삼스런 아름다움에 젖어드는 일은 나이트 이데올로겐 비할 대 없는 기쁨이라. 지나온 삶의 흔적에 애뜻함이 남아 있지 않는 이 있으리만

어차피 삶이란 미완으로 끝날 것이고 미완이기 때문에 이고 모자란 그대로도 소중한 것일뿐. 이 동경없는 결핍은 애중중하면서 마지막 비움이 다할 때까지 주어진 영혼대로 조심조심 살아갈 밖에.....



본지편집위원 이평규

홀려 보낸 세월들을 애써 되새김하지 않으려 한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인 사람들을 늘려가는 일이므로 세월이 다 할 때까지는 인연의 물살이 끊임없겠지만 뜨거운 사랑과 빛나던 눈물이 이제는 몇 줌의 추억으로 남아 지친 마음을 덤혀 주리니 무애의 자유 속에서도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나비의 꿈은 오롯이 책갈피 속에 꽃잎으로 문으며 박빙의 길을 가리라. 나이가 들면 마음이 맑고 엄전해져서 보이고 들리는 게 모두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는데. 지난 세월 내 진부한 몸짓에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이 온전히 건너오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할까 이 엄정한 삶의 섭리가 망연하기만 하다. 일탈이 잦았던 순명의 시간에 찾아온 이 황혼을 빛나는 축복으로 받아 드리려면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놓지 않아야 겠구나.

노욕을 삼가고 노추를 경계하며 애써 행복을 말하지 않고 기댈 곳 없는 고립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이며 희노애락에 뇌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혹 노년의 삶은 어디로 필지

모르는 마음을 날림치 못한 몸으로 불등고 가파른 비탈에 선 끈고한 시간은 아닐까 식막하다. 그래서 인고를 드러내지 않으려 홀로 비켜서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오랜 친구가 아니면 차라리 혼자 밥을 먹고 외롭게 술을 마시며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돌아앉아 호젓이 차를 마시는가 보다.

지나온 세월을 옥되게 하지 않으려 어눌한 몸으로 뛰는 마음을 다잡고 늙지 않은 마음으로 처지는 몸을 일깨워 고독한 세월을 지탱하고 있는 것인가.

不誠無物이라던가? 생명이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성실해야 한다는데 그게 황혼에 접어든 인생에게도 다를 바가 없나보다.

어차피 삶이란 미완으로 끝날 것이고 미완이기 때문에 비고 모자란 그대로도 소중한 것일터. 이 숙절없는 결핍에 순중하면서 마지막 비움이 다할 때까지 주어진 명운대로 조심조심 살아갈 밖에.....



동방의 등불이 될 북항 마스터 플랜

영도다리와 자갈치, 용두산 그리고 국제시장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관광협회 부회장 장순복

고환의, 부산 관광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를 빼놓을 수가 없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과장으로 근무할 때 부산의 관광산업은 다른 도시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 부산 관광의 재도약은 국내 관광객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수도권 관광객 유치 정책을 밀어붙였다. 꿩 잡는 게 매리는 그의 철학으로 시작된 관광정책은 내 나라 여행, 해양열차 등 부산 명품 여행을 탄생시켰다. 광복로의 쇠락을 지켜만 볼 것인가? LG전국소와 레이저쇼가 펼쳐지는 라스베가스 프리온 거리를 광복로에 만들면 아시아 최고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절규에 가까운 제안을 적극 추진하다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안타까워했다. 원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 인 사동거리와 같은 차 없는 거리 또는 루미나리에 빙초개 개최를 함께 공감하며 광복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 대박을 터뜨렸다. 선거판의 제물로 내동댕이쳐진 거덕도 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기 시작할 때쯤인가 충격적 고백을 했다. 부산항대교가 건설되더라도 세계 최대의 크루즈 유람선 북항 입항은 어렵고 크루즈 부두 건설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냐", "해수연료부터 부산항대교 상판까지의 높이가 60m면 안되잖아. 70m가 되어 대형 유람선이 들어올 수 있는데.", "덴마크의 그레이트 벨트 다리도 통항높이가 65m로 대형 크루즈선들은 굴뚝을 접고 입항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건데 설계를 그리했는갑지않?" 북항 마스터 플랜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초대형 크루즈선 부두건설이 처음부터 계획에 없었다는 건 너무나도 슬픈 일이다. 예산 부족이라는 명을 지고 동북아 최대 유람선 입항의 꿈은 사라졌다. 컨테이너 중심의 단순한 하역, 환적지역 역할을 벗어나 급성장하는 크루즈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부산관광협회 이태섭 회장과 함께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다.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관광객 편의 문제와 부산연안여객터미널을 박물관이 아닌 세계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복합문화시설로 바꾸고 유람선 메카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부산항만공사 정현돈 실장은 솔직했다. 북항 재개발은 동북아 크루즈 허브항이 아닌 여객과 화물 공용부두로 설계되었다. 크루즈 부두는 설계변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크루즈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북항 재개발 사업 2단계 사업 추진 때 국내연안여객터미널과 원도심을 한 축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8조 8000억여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와 함께 롯데그룹이 1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관광진흥을 위한 신(神)의 한수요, 부산을 해양관광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국립아트센터,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같은 카지노가 핵심인 북항리조트, 샌프란시스코의 AT&T PARK 야구장과 같은 해변 야구장 등은 부산의 랜드마크 자리 잡으며 부산 관광 활성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4년 8월 취항한 낙동강 생태 탐방선은 33인승으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단체관광객을 받을 수 없어 관광 상품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임이 기름 값도 충당하지 못하는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관광 유람선은 승선인원이 200명 이상일 때 관광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마산의 국동 크루즈, 삼천포의 한려수도 크루즈, 여주의 이사부 크루즈처럼 800명이 동시에 승선할 수 있는 대형 유람선을 부산항도 띄워야 한다. 부산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영도다리를 지나 자갈치, 남항대교, 송도해변, 그리고 압남공원까지 운항하는 한 쪽의 그림 같은 유람선은 우리가 꿈꾸는 부산의 모습이다. 부산연안여객터미널 앞의 육교 철거와 함께 롯데호텔과 자갈치로 이어지는 해안산책로 사업추진은 부산이 아직 껴지 않은 보배라 할 수 있다.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로 원도심의 꽃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부산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유람선도 타고 도개기능을 되찾은 영도다리, 자갈치, 용두산 그리고 국제시장을 하나로 묶는 체류형 관광 상품을 마케팅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제7회 부산관광 UCC 전국공모전

공모방법

- 응모자격 : 제한없음(단, 팀 참가의 경우 팀원은 총 3인 이내로 제한)
 - 출품양식 및 규격
 - 3분 이내의 영상물(500MB 내외)
 - AVI, MPEG, WMV, MOV, H.264 중 택1
 - 가로 1920픽셀 이하(16:9, 4:3 화면 비율)
 - 프레임 속도 30fps 이하
 - 출품수 : 1인(팀)당 한편
 - 접수기간 : 2015. 6. 1(월) ~ 2015. 8. 17(월)
 - 접수방법
 - 1) 웹하드 <http://www.webhard.co.kr/> 에 접속
 - 로그인(ID : kookjemunhwa / PW : kookjeucc)후 올리 기 전용 선택
 - '제7회 부산관광 UCC 공모전' 폴더에 지원서와 출품작 업로드
- *지원서 파일명 : 부산관광UCC 지원서_작품명_이름(팀명)
 *출품작 파일명은 '부산관광UCC_작품명_이름(팀명)'
 ※접수마감은 2015. 8. 17(월) 18:00까지 업로드분에 한함

시상내용: 11점, 시상금 총 1,000만원

구분	상금	시상내역	비고
대상	3,000,000	1팀	부산광역시시장상
대학·일반부 최우수상	2,000,000	1팀	부산광역시시장상
우수상	1,000,000	1팀	국제신문사장상
입선	500,000	3팀	부산시관광협회장상
청소년부 최우수상	1,000,000	1팀	부산광역시시장상
우수상	600,000	1팀	국제신문사장상
입선	300,000	3팀	부산시관광협회장상

심사 및 시상

- 예 선 : 2015. 8. 18(화) ~ 2015. 8. 21(금)
 - 본 선 : 2015. 8. 24(월) ~ 2015. 9. 4(금)
 - 심사발표 : 2015. 9. 7(월) 국제신문 지면 및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개별통보
 - 시상식 : 2015. 9. 13(일) BEXCO 부산국제관광전 행사장
- ## 문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 TEL. 051)500-5227
 - 주최 : **Dynamic BILSAN**
 - 주관 : 부산광역시관광협회 국제신문

한국관광공사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 발간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년간 매월 추천한 '이달의 가볼 만한 곳' 정보를 모아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 책자를 발간했다.

'사시사철 주말여행 프로젝트' 책자는 제철에 가야 좋은 여행지 100곳을 소개하는 가이드북. 메인 여행지와 함께 그곳에 가보면 좋을 추천 여행지 400여 곳도 별드로 일러 준다. 계절별 찾아보기는 기본이며 팔도 빗꽃축제, 도시야경, 힐링, 한옥마을 등 테마별로 손쉽게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했다.

각각의 여행지는 대한민국 대표 여행작가들이 3년간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낸 곳들이다. 여행지마다 당일, 1박2일 등 따라만 가면 여행이 완성되는 추천여행 코스, 숙박과 맛집에 대한 엄선된 정보까지 알차게 담았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1997년부터 매월 '이달의 가볼 만한 곳'을 추천해 왔다. 여행지가 선정되면 여행전문가들이 추천된 여행지를 직접 취재해 생생한 글과 사진으로 그곳의 감동을 전달하며 매년 70곳 이상의 지역이 추천됐다.

제18회 부산국제관광전 박람회 구성

전시행사

- **국내관광홍보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관광협회, 공공기관, 유관 단체 및 협회
- **해외관광홍보관**
 - 세계 40여개국 대사관 및 관광청 홍보관
 - 부산 지매도시 홍보관
- **여행상품특별판매관**
 - 국내외 여행상품 특가판매 (대형 여행사 다수 참가)
- **여행용품판매관**
 - 레저용품, 여행용품 등 다양한 상품 할인판매
- **세계음식페스티벌**
 - 세계 10여개국의 전통음식 판매관
- **관광지식정보교류관, 메가이벤트홍보관, 관광사업체관**
 - 관광학과, 박물관, 역사관 등 교육기관
 - 국제대회, 축제 등 대형 이벤트
 - 교통, 통신, IT, 스포츠, 의료, 환경, 미용 등 유관 분야



공식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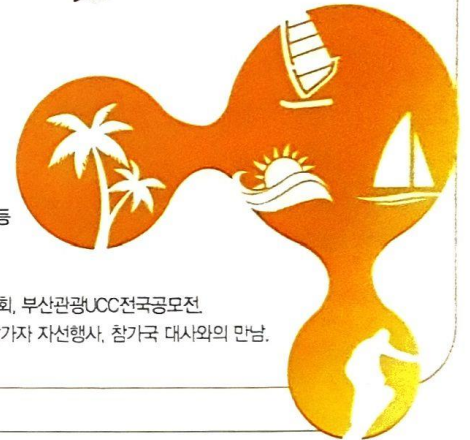
개막식, VIP 환영 리셉션, 국내외 참가자 환영파티, 폐막식

부대행사

국내외 민속공연, 전문문화체험관, 세계전통의상체험관, 경품추첨 등

특별행사

KNN특별방송, 해외비이어 초청 B2B트래블마트, 관광서비스경진대회, 부산관광UCC전국공모전, 부산관광사진전국공모전, 세계음식페스티벌, 유학생관광골든벨, 참가자 자선행사, 참가국 대사와의 만남, 해외참가자 부산 팸투어 등



제18회 부산국제관광전 특별행사

하나



부산 관광 UCC 전국공모전

부산 관광홍보 동영상 공모전을 통해 지역 시민과 전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둘



부산 KNN TV 특별방송

KNN(부산, 경남 대표방송)이 각 참가국가/기관의 홍보를 위하여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방송을 진행합니다.

셋



관광서비스 경진대회

관광서비스(바리스타, 주조사 등) 경진대회를 통해서 전국 관광 전공 고교생들의 실력을 보여드립니다.

넷



세계음식페스티벌

부산에서 만나는 세계 10여개국의 다양한 음식과 조리 퍼포먼스 연출 등 이색적인 맛과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열정의도시, 낭만의도시 매력넘치는 국제관광도시 BUSAN

세계 각국의 다양한 관광정보를 한자리에~
세계 40여개국과 함께하는 특별한 관광축제!!!



제18회 부산국제관광전 차별화 전략

- 해외 40여개국이 참가하는 초대형 국제박람회
- 출전자와 관람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시 서비스
- BITF 2015 지속적인 성장 추구

성장
Growth

비즈니스
Business

- 우수 셀러, 해외 바이어 초청 심담회 진행 (B2B)
- 여행상품특별판매단 운영 (B2C)
- In-Outbound를 망라하는 비즈니스 중심 전시

즐거움
Fun & Joy

- 세계전통의상체험, 한국전통체험
- 해외민속공연관람, 세계음식페스티벌 등 다양한 참여형 부대행사들 동시 진행

정보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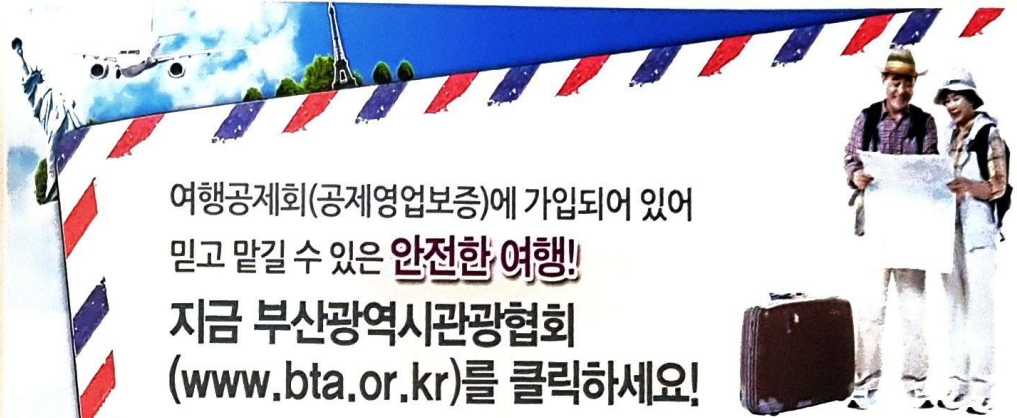
- 국내외 관광홍보관
- 여행상품특별판매관
- 부산관광, 여성경연회, 관광설명회
- 해외관광설명회 등 다양한 정보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관광
Tour

- 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우수한 문화 및 관광지 소개
- BITF에 참가하는 해외 및 지역단체가 선보이는 실속 있는 여행상품 체험

BITF 2015

The 18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여행공제회(공제영업보증)에 가입되어 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여행!**
지금 부산광역시관광협회
(www.bta.or.kr)를 클릭하세요!

기보세여행사 09-52-794	기보지여행사 09-52-0036	강남고속관광여행사 09-529-9888	강신여행사 09-79-003	게스트하우스 09-623-200	경명제여행사 09-30-770	경성여행사 09-61-880	경희관광여행사 09-699-080	고려선여행사 09-37-502	고려관광여행사 09-403-950	고은고속관광 09-523-970	골드고속관광 09-623-020	골드여행사 09-29-004	글로벌여행사 09-34-255	구주 09-45-255
국내대여행사 09-46-237	국제여행사 09-624-001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굿모닝투어 09-693-885
김마리고속관광 09-580-9880	김빛항공여행사 09-46-0398	나눔여행사 09-464-077	나사투어 09-463-001	나우항공여행사 09-462-039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남시방투어 09-462-463
뉴스미일여행사 09-753-3886	뉴엔젤여행사 09-533-0824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뉴대행여행사 09-30-1228
동부여행사 09-594-004	동부대여행사 09-443-635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동서항공여행사 09-446-0388
명원여행사 09-462-428	명원여행사 09-324-9937	모던고속관광 09-320-200	모던고속관광 09-462-2888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미래여행사 09-693-777
우성여행사 09-489-0880	부산고속관광여행사 09-487-333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그린투어 09-486-100
부산히니여행사 09-803-2284	VIP국제여행사 09-462-256	블루스카이여행 09-537-6664	블루스카이여행 09-446-684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비즈니스여행사 09-465-200
세부신관광 09-693-0000	세부신관광투어 09-693-0000	생류부산 09-465-295	서경여행사 09-46-974	서주고속관광 09-462-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서경여행사 09-46-974
세명여행사부산지점 09-469-4661	세명여행사 09-469-8886	선명투어 09-692-722	선명여행사 09-704-9888	소용기자 09-636-8002	소리여행기회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소용여행사 09-465-347
신우고속여행사 09-755-417	신우고속투어 09-755-417	신용투어 09-446-200	신에이시스템 09-446-200	피스키투어 09-465-7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피안여행사 09-465-882
인투어 09-694-282	에베레스트여행사 09-6204-8886	에스비케이투어 09-692-230	에스투어 09-624-00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에이투어 09-465-280
연꽃여행사 09-743-397	영일투어 09-509-001	에스모유 09-46-982	오네트릭스 870-925	오렌지관광 09-756-306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오렌지버스 09-693-800
우리강산방역여행 09-465-1179	우리고속관광 09-462-22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우리여행사 09-464-032
인투어 09-678-264	신국관광부산사무소 09-677-556	제이투어 09-610-0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제이투어 09-409-800
힐월드 09-48-72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한울국제여행사 09-440-387
태양관광 09-442-3001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태양여행사 09-446-18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투어코리아 09-31-900
한국고속여행사 09-442-611	한국고속여행사 09-503-533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한국고속여행사 09-465-131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해운관광 09-704-333

BUSAN TOURISM ASSOCIATION
부산광역시관광협회
부산광역시 동구 대영로 243번길 38
대표전화 051-463-3111 | 팩스 051-463-0004

since 1995
제18회

세계는 부산으로, 부산은 세계로!!

The 18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부산 국제관광전

2015. 9. 11 (금) ▶ 9. 14 (월)

장소 **BEXCO**

Since 1995
BITF 2015
The 18th Busan International Travel Fair

